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ClearPa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가지

보스톤 새내기들을 위한 교통, 자녀교육 및 학군, 쇼핑, 인터넷 및 핸드폰 전화 개통, 의료 정보, 은행 정보 망라

다시 9월이다. 8월 중순을 넘어서부터 활기차던 보스톤의 거리는 9월을 맞이하며 기어이 한번 이사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변화는 늘 고통과 불편함을 수반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린다.

그래도 보스톤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시작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예사롭지 않다. 자신의 삶을 시작할 보금자리에서부터 생활관계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보스톤 코리아는 이 변화를 겪고 있는 보스톤 새내기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보를 6가지로 압축해서 전하고자 한다.

항상 첨연하는 것이지만 비록 내용은 처음인 새내기들을 위한 것이지만 보스톤에서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보고 참조할만한 내용들도 함께 실었다. 이제 그 6가지 내용을 2회에 걸쳐 만나보자(편집자 주)

### 1. 보스톤의 교통

보스톤은 대학 및 교육의 도시인 만큼 대중교통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곳이다. 한국에서 처음 온 유학생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불편한 대중교통일 수 있지만 다른 미국 도시에서 온 학

생들은 대부분의 곳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것에 감탄한다.

문화에서 생겨난 관점의 차이이지만 마냥 불편해 하거나 마냥 편리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고 어느새 적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키로 했다면 보스톤을 비롯해 브루클라인, 뉴턴, 워터타운, 벨몬트, 케임브리지, 서머빌, 메드포드, 에버렛, 폴든, 멜로즈 등 버스 또는 전철을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집을 구해야 할 것이다. 위에 명기된 지역 외 대부

분의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라면 차량을 구입해 운전하고 다녀야 한다.

따라서 교통 관련 사항에서는 가장 먼저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독자들, 차량을 이용하는 독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독자들 순서로 설명할 것이다.

#### A. 대중교통

보스톤에서는 전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통칭해 T라고 부른다.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곳이 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무동산 매각·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할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From \$750  
ONLY 1 STOP  
(디트로이트 경유)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750은 델타항공 요금입니다.  
해당 가격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되며, 동시에 발권조건 (출발일 기준 50일 이전 및 8월 31일까지 발권)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항공권 금액이 적용되는 좌석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컨설팅서비스를  
기대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Sonja B. Salami,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보스톤 느헤미야 평신도 신학원 공개강좌

과학과 존재와 계시의 주제 세미나 전 MIT, 하버드 교수 등 모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는 평신도신학원 개원을 앞두고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보스톤 한인 교회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015년 가을 학기 강의는 <과학과 존재와 계시>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장성철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강연은 우시창 박사가 주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어 김승환 박사가 우시창 박사의 발제를 논하고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번 강연에 진행을 맡은 장목사, 우 목사, 김목사는 세 사람 모두가 과학자 출신에서 목회자로 돌아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 MIT 교수직을 버리고 56세에 목사안수를 받은 우시창 목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간이 그리냐는 질문에 “그리운 것은 전혀 없다”며 “사실 올해 초에도 교수 겸 연구원 장으로 청빙이 왔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목사는 “목회는 모든걸 뒤로 던지고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이다”며 “복음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목사는 ‘신앙도 과학 못지 않게 논리적이다’ 고 밝혔다. 우 목사는 “핵심적인 논리가 없는데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며 “어거스틴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구했을 때는 믿음을 얻지 못했지만 반대로 믿음을 얻은 후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뇌신경 과학자이자 전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였던 장성철 목사는 신경과학공부 후 어떤 계기로 신학공부를 시작하였냐는 질문에 “형이하학적인 생각과 태도로 해결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문제로 고민하던 중 하나님의 존재, 인생의 의미, ‘행복이란 무엇일까’로 고민했다”며 “비즈니스와 성공의 삶으로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자,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목사도 “믿음이란 논리와 이성 이 분리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 될 수 없다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관찰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목사는 “오래된 여론 조사의 결과를 통해 미국 대학교수 중 인문사회계열 교수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는 평신도신학원 개원을 앞두고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보스톤 한인 교회 교회에서 공개강좌를 연다

의 13%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반면, 자연과학계열 교수는 40%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자연과 과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문들이 결코 믿음의 방해물만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목사, 우 목사 외 김승환 박사의 ‘공개강좌 : 과학과 존재와 계시’에서 이들의 자세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공개일정**  
일시: 9월12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jham@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 '협녀' 무료 티켓 당첨자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은 보스톤코리아가 실시한 ‘협녀: 칼의 기억’ 무료 관람권 이벤트에 참가한 독자 총 12명에게 무료티켓을 증정한다.

지난 21부터 7일간 실시된 ‘협녀 이행시’ 이벤트는 보스톤코리아가 독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실시한 깜짝 이벤트이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독자 전원은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픽업하면 된다.

픽업은 8월 31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 보스톤코리아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이다.

이번 여름 최고의 화제작 ‘암살’에 이어 무협 액션 대작 ‘협녀’

는 보스톤 소재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 19에서 개봉된다.

무료 티켓 교환권은 해당 상영관 고객 서비스 창구에서 평일 티켓 2장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날짜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목요일까지이다.

미주에서는 영화 ‘협녀’가 ‘Memories Of The Sword’ 이라는 타이틀로 개봉된다.

**개봉일정**  
일시: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장소: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협녀〉이벤트 당첨자 아이디 순한양, cruel78, guqsul123, 영화를 보고싶은 여자, 보스톤학생, Dawei, boston\_love, boston^^, April, 보스톤아저씨, 영화좀 봅시다, planopkm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케어**

##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대리 스트라이프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펌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헤어 에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에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태권도 국가 대표 정재훈 선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우스터(Worcester) 출신 태권도 선수 정재훈(Edward Jeong, 20)선수가 지난 7월 2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시니어 1패어 개인 품세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 선수는 작년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제9회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과 US 오픈 시니어 1 남성 팀에서 금메달을 따낸

기록도 있다. 정 선수는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마치 올림픽과 같은 대회였다” 며 “부담도 많고 긴장도 많이 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너무 기쁘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정 선수는 “이번에 금메달을 따서 자신감이 생겼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금메달을 받아 오겠다” 고 덧붙였다.

정재훈 선수는 형 정성훈(Alex Jeong, 22) 선수와 더불어 미국 국

가 대표 태권도 선수이며 우스터와 슈즈버리 USTC(US Taekwondo Center) 그랜드마스터 정제형 관장(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 회장 및 한인회수석부회장)의 아들이다. 정재훈 선수는 정성훈 선수와 함께 아버지의 도장을 지도해 오고 있다.

정 선수는 현재 내년 2월 즈음 열리는 US Open 태권도 대회를 목표로 훈련 중인 상태다.

jham@bostonkorea.com



미국 국가 태권도 대표 정재훈선수가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시니어 1패어 개인 품세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2일 보스톤에서 펼쳐진 '보스톤 섬머 인터네셔널 주짓수 챔피언십(IBJJF) 대회'에 출전한 한인 노정철(31)씨가 매스터 1 슈퍼 헤비 블루 벨트 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 2015 보스톤 섬머 인터네셔널 주짓수 대회 한인 노정철씨 금메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22일, 보스톤에서 펼쳐진 '보스톤 섬머 인터네셔널 주짓수 챔피언십 (IBJJF) 대회'에 출전한 한인 노정철 (31)씨가 매스터 1 슈퍼 헤비 블루 벨트 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노스 이스톤에 거주하는 노정철씨는 돌 때 미국으로 이민온 1.5세 재미교포이다.

노정철씨는 스토튼에 위치한 주짓수 피닉스 맥스 트레이닝 센터 (JiuJitsu Fenix Maxx Training Center)의 헤드 코치 마이크 바너 (Mike Varner)에게 3년간 훈련을 받아왔다. 노씨는 “어렸을 적부터 UFC를 보면서 자랐다” 며 “태권도와 무에타이 킥복싱 (Muythai

Kickboxing)도 배운 적이 있다” 고 밝혔다.

노씨는 “주짓수가 다른 무술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UFC와 MMA를 통해 조금씩 알려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노씨는 “주짓수는 상대와 존경을 다루면서 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적대적이지 않게 하는 젠틸 무술”이며 “이기고 지고 떠나서 상대 제압을 중요시하는 무술” 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오는 10월 말 로드아일랜드에서 열리는 NAGA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중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jham@bostonkorea.com



# SAT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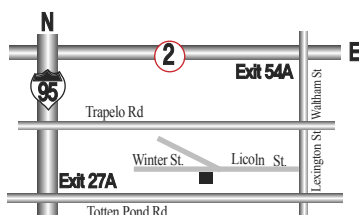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 New )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 Old )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김철 '인디언의 길' 출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코리아의 칼럼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의 저자 칼럼니스트 김철 호수복지문화대 교수가 '인디언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인디언의 길' 은 북미대륙 원주민들의 500년간의 수난사를 담은 글이다. 김철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보스톤코리아를 통해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였다.

김 작가는 북미 원주민의 근현대사는 '길 위의 역사' 라고 정의했다. 이어서 이들은 백인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패잔병의 길, 강제이주의 길, 도피의 길" 을 걷게 됐다고 묘사했다.

이어 김 작가는 원주민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난 1978년부터 지금까지 4번이나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롱기스트 워크'를 벌인 모습을 글에 담았다. 작가는 그들이 걸어온 길을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관찰하였다.

김 작가는 어원과 사료를 통해 추측한 북미 인디언들의 기원부터 2011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



보스톤코리아의 칼럼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의 저자 칼럼니스트 김철교수가 '인디언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령이 유엔 원주민인권선언에 서명하기까지의 역사를 짚었고 19세기 북미대륙에서 일어난 전쟁과 그 이후 북미 원주민의 삶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 작가는 미국에 있는 여러 원주민보호구역을 직접 방문해 그

곳에서 만난 추장과 부족민의 목소리를 책에 담았다.

이어 웬만큼 알려진 인디언의 옛 모습과 함께 최근 원주민 인권 운동 등 현실적인 모습을 자세히 그려냈다.

jham@bostonkorea.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신입교사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본 학교 강당에서 오는 28일 금요일과 9월 12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교사연수회는 2015학년도 새 학기 준비 및 교사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회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들은 물론, 타학교 교사,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등 누구나 등록비 없이 참가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세 기초 준비반부터 성인반까지 49개 반에 기초1-2과정(김희현 리더 교사), 기초3-4과정(이성희 리더교사), 초급과정(주민정 리더교사), 중급과정(김소희 리더교사), 고급과정(김영순 리더교사), 이중언어과정인 세종과정(안은숙 리더교사)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회(회장 이현주), 이사회(이사장 윤경숙)의 최선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다.

오는 9월 19일 전체 개학을 앞두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세 기초준비반 및 기초1-2과정반을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는다. 이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세들의 뿌리교육에 함께 동참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고 전했다.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육, 한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

글교육, 음악/미술교육, 한국무용 등 각 부문에서 봉사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 & www.koreanschool-ne.org)를 방문하거나 남일 교장(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연락하면 된다.

### 행사일정

신입생 1차 오리엔테이션: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신입생 2차 오리엔테이션: 2015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jham@bostonkorea.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http://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잎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BU 박사과정 김상윤 프라하 콩쿠르 한인 최초 우승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제 67회 프라하 콩쿠르" 에서 한인최초로 우승

클라리넷 부분 우승과 함께 현대곡상까지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현재 보스톤 유니버시티(BU)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인 클라리넷리스트 김상윤(27)씨가 지난 4월 체코에서 열린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제 67회 프라하 콩쿠르' 에서 한인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상윤씨는 모차르트 협주곡 작품번호 K622 A장조와 아론 코플랜드(Aaron Copeland) 클라리넷협주곡을 연주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상윤씨는 클라리넷 부분 우승과 함께 현대곡상까지 수상하였다.

본지에서는 김상윤씨를 이메일을 통해 만나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때 처음 클라리넷을 시작한 김상윤 씨는 예원학교 재학 중

프랑스 파리로 떠나 9년동안 유학생을 하면서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로스앤젤리스 콜번학교(Colburn School)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마쳤다. 보스톤에는 박사과정을 위해 작년부터 머물고 있다.

김성윤 씨는 클라리넷의 가장 큰 매력은 "어느 목관악기보다 넓은 음역대와 섬세하고 가녀린 음색부터 강하고 힘있는 톤까지 다양한 뉘앙스이다" 며 "가끔 음이탈의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여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라고 표현했다.

김성윤 씨는 지난 8월15일에는 광복 70주년 기념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니스트 안수정씨,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씨와 함께 무대에 서고 라임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장윤성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코플랜드협주곡을 연주했다.

현재 김성윤 씨는 "오는10월 24일 보스톤에서 열리는 'Brookline Symphony Orchestra' 와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5월에 프라하 춘계 페스티벌에서 BBC Symphony와 연주가 있을 예정이라' 고 덧붙였다.

jham@bostonkorea.com



클라리넷 연주자 김상윤(27)은 제67회 프라하 국제 콩쿠르 클라리넷부문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 가지

▶▶1면에 이어서

tion Authority)이고, 대중교통 표지 판에 보통 크게 T라고 표시되어 있어 편의상 T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금으로 낼 경우 버스비는 \$2.10, 전철은 \$2.65이다. 찰리카드를 이용할 경우 각각 \$1.60, \$2.10로 저렴하다.

보스톤 외곽까지 운행 되는 기차(Commuter Rail)의 경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MBTA 홈페이지(www.mbta.com)에서 미리 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기차 요금은 찰리카드로 지급할 수 없다. 기차를 탈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중에서 'mbta mticket' 앱을 다운하면 쉽게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앱으로 일반 버스 티켓이나 전철 티켓을 구입할 수는 없다.

찰리카드는 한국의 교통카드와 유사하고 전철역, 대형 마켓, 편의점 등에서 재충전이 가능하다. 보통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월별 패스를 구입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Monthly LinkPass는 한달에 \$75이다. 이 패스의 단점은 월 초에 구입하나 중간에 구입하나 그 달만 사용 가능하며 가격이 똑같다. 그러나 이 패스를 구입하면 무제한으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 패스는 \$12, 일주일간 이용할 수 있는 워크 패스는 \$19이다.

보스톤 다운타운 인근 지역은 T가 비교적 자주 다니지만, 기차를 포함한 외곽 지역은 배차 간격이 1~2시간 이상으로 길다. 또한 버스나 전철의

경우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2~3대가 몰려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T가 언제 오는지 미리 알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T가 오는 시간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MBTA로 검색하고 평가가 좋은 앱을 설치해 사용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간직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구글맵(maps.google.com)을 통해 검색하면 해당 역의 T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 B. 자가운전 국제운전면허

매사추세츠 주는 한국과의 국제 협정에 의해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er's Permit) 사용을 입국 일로부터 1년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가끔씩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티켓(Ticket)을 발부하고 차를 현장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등록국(RMV)은 국제운전면허증보다 오히려 한국 면허증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

을 가지고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동시에 지참하는 것이 좋다.

###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 신청

운전면허 신청은 www.massrmv.com에서 자신 거주지와 가까운 차량등록국 지점을 찾아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각 지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대기시간을 알아볼 수 있다. 반드시 2-3개 지점의 실시간 대기시간을 점검해보고 가장 짧은 곳을 골라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신청 서류:** 운전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 외 구비할 서류는 1.소셜시큐리티번호(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경우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발급하는 Denial letter), 출생 증명, 서명 증명(집계약서 등 자신의 서명이 있는 서류), 거주 증명(전화, 전기, 은행 고지서 등) 등 4가지다.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도 창구 직원에 따라 거절(Rejection)을 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등록국에서 운전면허 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항의할 수도 있다.

**필기 및 실기 시험:** 필기 시험은 신

청 당일 볼 수 있다. 필기 시험은 영어 컴퓨터 시험으로 보며 시간 제한이 있다. 영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도 있으며, 한국어로 시험을 볼 경우에는 컴퓨터가 아닌 시험지로 보게 된다. 필기 시험 통과 후에는 연습면허(Learner's Permit)가 주어지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실기 시험 시간을 예약하여 시험을 치르면 된다. 실기 시험을 치를 때는 시험에 사용할 차량을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며,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함께 동승해야 한다.

### 한국 운전면허 교환

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약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신분(H, F, E, L비자 등)을 제시할 경우 필기,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일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B1, B2 등 단기 방문 비자는 운전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1.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인증된 영어 번역문(영어 번역문 작성양식은 총영사관 웹사이트 www.usa-boston.mofat.go.kr에서 다운, 번역인증 필요), 2. 영문 한국 운전경력증명서 원본(최대 60일

이내 발행), 3.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비자 및 I-94, 4.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서류(전화, 전기, 은행 고지서 등), 4.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서류, 5.본인 서명이 들어간 원본서류, 6.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거부통지서 등이다.

이것과 더불어 운전면허 변경신청서(Application to convert) 그리고 운전면허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 교환 신청은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모든 차량등록국에서 가능하다. 영사관측은 제대로 서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한국 면허증 번역 영사확인 등 편의를 위해 사전에 영사관을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점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더라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필기시험 \$30, 실기시험 \$35, 면허증 발급 \$75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사확인 수수료 \$4이 필요하다.

### 타주에서 이주자 운전면허 신청

타주 이주자는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순간부터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소유해야 한다. 타주의 운전면허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타주 운전면허증(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있는 사진 증명서가 필요), 2. 출생증명서 원본,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가지

▶▶6면에 이어서

3. 서명 증명(타주 운전 면허는 출생 증명 또는 서명 증명 중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다) 4. 소셜시큐리티번호(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경우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발급하는 Denial letter), 출생 증명, 5. 거주증명(전화, 전기, 은행 고지서 등) 6.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비자와 여권 및 I-94 등이다.(소셜 시큐리티 번호 제출 시에는 필요 없음)  
이 같은 서류와 함께 면허 변경신청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 타주에서 구입한 차량의 등록

타주 이주자가 운전면허 변경을 신청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차량등록증 변경이다. 타주에서 구입해서 6개월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매사추세츠 주는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일즈 텍스를 부과한다. 다만 뉴햄프셔 등 전혀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는 주의 차량을 매사추세츠 주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세일즈 텍스가 부과된다.

### 중고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

차량을 딜러에서 구입한 경우 대부분의 서류처리는 딜러에서 서비스한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 모든 신청서는 본인이 담당해야 한다. 차량등록국(RMV)은 차량을 구입한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구입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차량을 구입후 반드시 면허를 가진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를 방문 자동차 보험 을 구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기입된 등록 및 타이틀 신청서(RMV-1)에 서명하고 스탬프를 찍어야 한다.

2. 기입된 등록 및 타이틀 신청서(RMV-1)는 전 주인의 타이틀(Certificate of Title) 또는 과거 등록증과 차량거래증명서(bill of sale)가 있어야 한다.

3. 매사추세츠 주법은 자동차 거래서 반드시 마일리지 상태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판매 및 구매자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거래 일자 를 기입토록 하고 있다. 전 주인의 타이틀에 판매가격란이 있으면 반드시 가격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공간이 없는 경우 거래증명서에 반드시 차량 가격이 적혀 있어야 한다.

서류를 구비한 후 풀서비스 지점을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거래에 따른 세일즈 텍스는 거래가격과 미차량딜러협회(National Automotive Dealer Association ;NADA)의 가격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6.25%를 부과한다.

### 차가 견인 당했을 때

보스톤에서 차를 소유했을 때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견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견인의 경험은 거리청소 시간에 차를 옮기지 않았서 생긴다. 두번째는 눈이 많은 보스톤 특성상 폭설 경보시간에 거리 주차를 했을 경우다. 나머지는 불법



주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나 공공장소(거리, 공공시설)에서 견인을 당했을 경우 보스톤 경찰(617-343-4629)에 연락해야 한다. 케임브리지의 경우 케임브리지 경찰(617-349-3300)에 연락하면 된다.

만약 사립 주차장에서 견인 당했을 경우, 해당 주차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고 문구에 따라 전화해서 견인된 차를 찾아야 한다.

보스톤의 경우 견인 경고를 신청하면 견인했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경고를 해준다. <http://www.cityofboston.gov/towi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의 경우 다음 웹사이트에 들어가 견인 차량을 조회해 볼 수 있다. <https://www.cambridgema.gov/ec1/TowedVehicles.aspx>

### 차량 구입 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가입

MA 주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에는 제일 먼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을 등록하는 데 가장 우선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

주 정부 차원으로 자동차 보험을 통제하던MA주는 지난 2008년 4월부

터 시장경쟁 보험체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가이코(Geico),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올스테이트(All-state) 등의 대형 보험사들을 비롯해 11개 보험 사들이 MA주로 진출해 있다.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올스테이트의 3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 견적을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기존 보스톤 지역 주요 보험회사는Morse, Metro Boston, Commerce, Safety, Arbella 등이 있다. 이들 보험사를 이용할 경우 모두 보험 에이전시(Agency)를 통해야 한다. 한인 에이전시는 Prescott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문항(781-325-3406) 씨가 있으므로 자세한 한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보험 구입하기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 각 지방 경찰청 운전면허증 담당 부서에서 영문으로 발급해 주는 "영문운전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원본, 복사본, 스캔된 이미지 모두 무방하다. ▶한국 운전 면허증 앞면, 뒷면 스캔된 이미지. ▶현재 거주지 주소. ▶1년 보험료의 25%를 지불할 수표 혹은 현금 (아직도 보험료는 크레딧 카드로 지급할 수 없고, 개인 수표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함).

또한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Title 앞면, 뒷면 스캔된 이미지 ▶차를 딜러

에서 구입하는 경우 에는 딜러에서 보험 에이전시로 RMV-1 Form (Certificate of Origin 사본 포함)을 꼭 보내야 한다.

▶이미 MA 주 운전면허증이 있고,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중인 경우는 이 과정(자동차 딜러가 RMV-1 Form 을 보험 에이전시로 보내 보험 가입 인증 스탬프와 사인을 받아 계속 자동차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이 FAX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아직 MA 주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와 자동차 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딜러에서 만든 RMV-1 Form 원본에 스탬프와 사인을 받아 RMV 에 그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 보험 견적 알아보기

보험 견적을 미리 알아보려고 한다면 위의 필요한 모든 서류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받쳐 다음. ▶한국 운전 면허증 처음 교부 받은 날짜 ▶한국 운전 면허증 번호 ▶생년월일 - 면허증 상에 표시된 생년월일 ▶현 주소지 ▶차량의 17 자리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중고차의 경우 차량의 현재 마일리지 (Odometer) 등을 알려줘야 한다.

### 보험료 결정요인

보험료(premium)는 과거 운전 경력 연수와 운전 기록(사고 및 법규위반의 여부), 차를 주차하는 지역, 차종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며 보험사 및

▶▶8면으로 계속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ohan,cps@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 가지

▶▶7면에 이어서

보험항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무엇보다 보험료 책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상한도(Coverage) 내용이다. 그 외 야간 주차지역(즉 거주지)이 도심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며 한 적한 교외일수록 저렴하다. 또한 운전 경력 연수와 운전 기록(사고 및 법규 위반의 여부),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내에서 운전 면허를 받아 운전해 온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 위반 기록을 [www.mass.gov/mrb](http://www.mass.gov/mrb)에 신청해 받아 볼 수 있다. 수수료는 \$15이다. 자기 과실 사고나 법규위반 티켓을 받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추가 요금(Surcharge) 통지를 받게 되며 이 같은 기록은 6년간 지속된다.

다른 주에서의 운전 경력과 기록도 해당 주 DMV에서 Driving Record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인정해 준다.

한국 경력과 기록도 경찰청 발행 영문운전경력증명서와 한국 운전 면허증 양면, 뒷면 복사본을 제출하면 동일하게 인정해 주지만 미국에서 지난 1년 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점점이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추세이다.

차의 현재 시장 가격은 보험 가입 조항 중 Collision 부분과 Comprehensive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Collision은 운전자 자기 잘못으로 자기 차를 망가뜨렸을 때 수리비를 보상 받는 조항이며 Comprehensive는 차량의 도난이나 화재 시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은 해당 차량의 현재 시장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 주정부 의무 자동차 보험 항목

주정부가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의무 자동차 보험항목은(Compulsory Insurance)은 대인 대물(Liability) 보험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최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인 보험(Bodily Injury to others)은 1인당 \$20,000, 사고 한 건당 \$40,000이 기본이다. 보통 보험사들은 실용성을 고려해 사람 1인당 \$35,000, 사고 한 건당 \$80,000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개인상해(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는 한도가 \$8,000이다.

무보험자에 의한 신체 상해(Bodily Injury caused by an uninsured motorist)의 최소 한도는 사람 1인당 \$20,000 사고 한 건당 \$40,000이며, 대물(Property Damage)은 최소한도가 \$5,000이다.

대인 대물 보험에 덧붙여 자신의 차 및 각종 선택 보험까지 커버하는 보험을 풀 보험이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자신의 차가 거의 가치가 없는 중고차라면 대인 대물 보험만을 구입해도 된다. 하지만 모든 사고처리를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C. 자전거

자전거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고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보스톤 시와 케임브리지 시 등 인근 시에는 대부분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당히 번잡한 도시인 보스톤은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지난 5년 사이 무려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지역이란 것도 새겨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에 따른 교통수칙을 잘 지키고 사전에 운전자의 눈을 바라보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가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신이 탄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 들여야 한다. 또한 겨울이 긴 보스톤의 특성상 자전거가 적절한 교통수단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 자전거 구입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3가지 타입의 자전거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로드 자전거로 레이싱에 적합하고 장거리 주행을 위해 적절한 자전거, 둘째 트레일에서 타기 좋은 산악 자전거, 그리고 통근용으로 가장 적절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이 세가지 타입이 기본이다. 통근용이라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는 하이브리드가 적절하다.

두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300대에서 \$10,000가 넘는 가격대까지 다양하다

. 따라서 일년 교통비를 고려해 적절한 자전거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자전거 가게는 서머빌의 에이스 휠웍스, 보스톤 브라이언트 애비뉴의 인터네셔널 바이시클 센터(뉴튼에도 있음), 워터타운 패리나스 바이시클 센터, 벨몬트 벨몬트 휠웍스, 올스턴 커먼웰스 애비뉴의 랜드리스 바이시클스 등이 있다.

### 자전거 구입의 대안 허브웨이

곳곳마다 볼 수 있는 허브웨이(Hubway)는 자전거를 사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자전거를 위한 도로 또한 잘 구비되어 있다. 보스톤, 캠브리지, 브루클라인, 섬머빌, 뉴튼, 알링턴, 메드포드, 퀸시, 워터타운 등 보스톤 전역에 140여 곳이나 설치되어 있으며 무려 1,300대의 자전거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

한 달 멤버십과 일 년 멤버십은 각각 \$20, \$85이며 개인 키가 제공된다. 24시간 혹은 72시간 대여할 수 있는



패스(pass)는 자전거를 빌리는 정거

장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30분 이하 사용 시 무제한 무료 이용이나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 2. 보스톤 쇼핑 가이드

당장 필요한 물건을 어디서 구매해야 할지 모를 때의 막막함은 낯선 곳에서의 적응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제 막 보스톤 생활을 시작한 이들을 위해 식료품부터 전자제품까지, 한 눈에 보는 쇼핑 가이드를 준비했다.

### A. 식료품 구입

#### 미국 슈퍼마켓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은 슈퍼마켓 중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 특히, 다른 슈퍼마켓 체인과 비교해 육류, 야채, 과일 등이 가격 면에서 부담이 적다. 보스톤 근처에는 서머빌, 몰든, 우번, 벌링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샤스(Shaw's), 스탱 앤 샵(Stop & Shop)은 마켓 바스켓보다는 가격이 비싼 편이다. 매장 규모가 큰 편이며 식료품 외에도 치약, 칫솔, 전구 등 웬만한 기본적인 생활 용품 또한 갖추고 있다.

유기농 식품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는 트레이더 조(Trader Joe's)와 홀 푸드(Whole Foods)를 들 수 있다. 트레이더 조는 홀 푸드보다는 저렴한 편

▶▶9면으로 계속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운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17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권무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 가지

▶▶8면에 이어서

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햇반과 같이 포장만 뜯어 손쉽게 준비해 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이나 소스 등을 건강 한 버전으로 많이 내놓고 있어 건강 을 생각하지만 시간이 없는 젊은 층 에게 인기가 많다. 맥주 및 와인도 함 께 판매하고 있어 편리하다.

홀 푸드는 지금까지 살펴본 마켓 중 가장 상위에 속하는데, 바이오솔 리드(Biosolid: 산업 쓰레기로 만든 비료)나 보관기간을 늘리기 위해 방 사선이 조사된 식품(Food Irradia tion)은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 많은 제 품이 유기농이거나,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식품)임을 검증 받은 제품이다. 가격 은 마켓 바스켓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으나, 매주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 행되니 잘 이용하면 질 좋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데이 크 아웃 할 수 있는 조리 식품(pre-pared food) 코너도 잘 마련되어 있 다.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스톤 시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주류는 판매 하지 않는다. 참고로, 트레이더 조와 홀 푸드의 경우 생활 용품 코너는 크 지 않으므로 취급 제품 또한 폭 넓지 못하다.

웨그먼스(Wegmans)는 홀 푸드의 대형 마트 버전으로 보면 된다. 유기 농 제품은 물론, 치즈, 와인, 베이커리 , 샐러드바를 비롯해 다양한 시식 코 너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넓 게 마련되어 있어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많이 이용된다.

### 한인 슈퍼마켓

대표적인 한인 마켓으로는 에이치 마트(H Mart) 들 수 있는데, 빌링턴 과 캠프리지에 위치해 있다. 또한, 서머빌에는 뉴 릴라이어블(New Reli-able)이, 올스톤에는 미림(Mirim)이 있어 한국 식재료 구매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해이 마켓(Hay Market)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해 이 마켓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많 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구매하기 좋 다. 한국 야외 재래 시장과 같은 형태 로 지하철 해이 마켓(오렌지 또는 그 린라인)역에서 내리면 된다. 장이 서 는 시간이 정확히 따로 있는 것은 아 니며, 대략 해뜨기 시작하면 오픈 하 기 시작하여 해가 질 때까지 장이 선 다.

###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타운 별 마켓이 서는 일정과 기간 은 다르지만, 주로 날씨가 좋아지는 6 월 중순경부터 10월 중순 정도까지 운 영된다. 생산자인 농장에서 직접 나 와 판매한다는 점에서 중간 상인이 도매로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해이

마켓과 차이가 있다. 보통 파머스 마 켓의 판매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까다 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이 마 켓과 비교할 때 물건의 질이 좋고 가 격이 높은 편이다. 또한, 농장에서 직 접 만든 잼이나 피클, 식초 등을 구매 할 수 있다. 보스톤의 파머스 마켓 일 정 및 장소는 <http://bostonfarmers-markets.org/> 에서 확인 가능하다.

### B. 대형 할인 마켓

대형 할인 마트는 월 마트(Wal Mart), 비 제 이 (BJ'S), 코 스 코 (CostCo)가 있다. 이 중 포장 단위가 대량인면서 할인이 되는 곳은 비제이 와 코스코. 월 마트는 포장 단위가 작 다. 비제이와 코스코는 기본적으로 50-55불을 지불하고 연회원으로 가 입해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식재 료 외에 생필품, 약품 및 비타민류, 가 구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있다.



### C. 생활 용품 및 의약품 구입

시비에스(CVS), 월그린(Walgreen) 치약, 샴푸에서부터 간단한 문구 등 웬만한 생활용품 및 의사 처방전 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모두 이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 지점이 있어 차가 없는 사람도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다. 반드시 무료 멤버십 카 드를 만들어 놓도록 하자. 거의 매주 다양한 할인 쿠폰을 보내준다.

### 타겟(Target)

간단한 생필품에서부터 자전거, 옷 , 가구, 토스트기나 믹서 같은 소형 가 전, TV까지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 단,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원래 보스톤 인근 에서는 서머빌과 워터타운, 도체스터 에만 매장이 있었으나 최근 시내 펜 웨이 매장이 새로 오픈 하여 대중 교 통만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자세한 매장 정보는 <http://www.target.com/> 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족이 많은 경우 생필품은 대형할 인 마켓인 비제이나 코스코를 이용해 대형포장 상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다. 비누,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 에서부터 식품류, 의약품,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아이템은 다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 D. 주방, 욕실, 침실 물품

타겟, 시어스, 티제이 맥스(TJ Maxx), 홈굿스(HomeGoods), 마샬 스(Marshalls)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 티제이 맥스와 홈굿스, 마샬스는 아 윗넷 개념의 매장으로 알려진 브랜드 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다 보스톤 시내에도 매장이 위치해 편리하다. 다만, 세 매장이 같은 계열 사 이기 때문에 종종 물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같은 물건일 경우 가격은 동일하다.



조금 더 질이 좋고 디자인이 예쁜 물건을 원한다면 크레이트 배럴 (Crate & Barrel), 포터리 바(Pottery Barn), 메이시스(Macy's)를 이용해 보면 좋다.

### F. 전자 제품

전자제품 매장으로 가장 큰 곳은 베스트바이(BestBuy)나 마이크로 센 터(Micro Center)가 있다. 베스트바



이는 물건이 다양하게 구비 되어 있 으나 마이크로 센터에 비하면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캠프리지에 위치한 마이크로 센터는 베스트 바이 에 비해 아이템은 적은 편이지만 가 격은 저렴하다.

타겟을 비롯하여 시어스(Sear's), 대형할인매장인 월 마트, 비제이나 코스코에도 전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의한의대 42기)

안동 5년차, 외근보통 취급 / 명저한 주사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cn.com](http://www.graceacn.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베시류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바른 먹거리의 첫걸음, 바른 장보기 용어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초보 주부라면 생소한 단어 때문에 장보기 쉽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도대체 Non-GMO가 무엇인지, 오가닉(Organic) 쇠고기가 지니는 의미가 궁금했을 이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다.

## ▶ 케이지 프리(Cage Free)

특히 닭고기, 계란 구매 시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이다. 직역하자면 닭장 없이 키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흔히 전원의 농장에서 자유롭게 길러진 닭이 낳은 달걀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지는 않다. 닭 한 마리당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인 1스퀘어 피트를 만족시킨 양계장의 경우도 케이지 프리라는 라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4용지 절반 크기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알을 낳게 하는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에 갇힌 닭과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케이지 프리를 구매할 것을 권한다.

## ▶ 프리 레인지(Free Range)

케이지 프리의 경우처럼 주로 닭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지만, 넓게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때도 접하게 되는 단어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실외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케이지 프리와 구별된다. 단, '실외' 라는 개념이

소비자가 상상하는 '풀이 무성한 아름다운 전원 농장의 뒤뜰' 이 될 수도, '시멘트바닥 양계장의 비좁은 뒤뜰'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평생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사육된 닭보다는 스트레스가 적고 운동량도 많기 때문에 가



## ▶ 지엠오(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DNA)가 변형된 생명체라는 뜻이다. 전통 육종을 통해 계량해 온 농산물 역시 유전자가 변형됐지만, 대표적인 방울 토마토와 씨 없는 수박을 GMO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씨 없는 수박을 탄생시킨 육종 방식은 자연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종에 속한 식물들을 인위적으로 교배시켜 우수한 작물을 개발한 것이고, GMO 옥수수의 경우에는 미생물이나 동물에나 존재하는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특정 유전자를 식물인 옥수수에 삽입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GMO의 유해성이 속

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가

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즉,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임에도 이를 구별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홀푸드 등에서는 비영리단체인 논-지엠오 프로젝트(Non-GMO Project)와 함께 유전자 조작이 전혀 없는 제품임을 보증하는 인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제품에는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라벨이 붙여지니 구매 시 참고하자.



▶ 오가닉(Organic)의 진정한 의미  
제조 과정 및 제품에 농약, 화학비료, 합성



방부제, 색소 및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GMO)을 사용하지 않은 것. 미국 내에서는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오가닉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고기류에 오가닉 라벨이 붙는 경우는 사료 때문이다.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옥수수과 대두콩은 유전자 조작 단골 농산물이기 때문에, 오가닉 문구가 붙은 고기류는 적어도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와 대두콩 등은 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 외에도 오가닉 제품에는 보관기간을 늘리기 위해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Food Irradiation)은 포함될 수 없으며, 항생제도 사용될 수 없다.

htj@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FREE

- ✓기력회복
- ✓면역력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축축함 그 이상의 뿌리 보습  
동인비초오일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사우스 앤드에서 즐기는 일요일 오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산과 바다로 떠나기 바쁜 여름이지만, 한 번쯤은 시내에서 주말 오후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어지는 요즘. 아트 갤러리를 비롯해 빈티지 마켓, 분위기 있는 맛집까지 주말이면 어김없이 보스톤 멋쟁이들이 모이는 곳. 사우스 앤드를 함께 즐겨보자.

## ▶ 간단히 알아보는 사우스 앤드의 역사

사실, 사우스 앤드는 보스톤과 락스베리를 연결해주는 잘록한 지협(두 육지 사이를 연결하는 육지의 좁고 잘록한 부분. 대표적인 예로 파나마 지협을 들 수 있다.)으로 습지로 둘러싸인 볼품 없는 동네였다. 1850년대, 몰려드는

인구로 비컨힐과 다운타운이 포화상태가 되자 비로소 사우스 앤드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게 되는데, 습지를 개간한 흙은 매사추세츠 니덤(Needham)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빅토리안 스타일의 타운 하우스들은 당시 젊은 중산층 가족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1870년대 이후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대부분의 집들은 은행의 소유로 넘어가거나 싼 가격에 매각되게 된다. 집 소유주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노동자 계층의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로 점차 바뀌면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을 비롯하여 계이나 예술가,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사실, 1960년대까지 사우스 앤드는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은 동네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다운타운과 가깝다는 위치적 매력 때문에 전문직 젊은 중상층의 유입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결국 1983년 보스톤 랜드마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앞서 1973년에는 '전국에서 빅토리안 스타일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 길 따라 에티오피아 식당, 남미 맛집, 스페인 타파스가 한자리에

비록 지금의 사우스 앤드는 중상층 이상이 아니면 살기 어려운 '비싼' 동네가 되었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다양함이 어우러져 있다. 스페인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무언가 특별한 한끼 식



사를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사우스 앤드는 최고의 동네이다. 특히, 사우스 앤드를 가로지르는 트레몬트 스트리트(Tremont st.) 주변으로 특색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기로 유명한데, 55번지에 위치한 아디스 레드 씨(Addis Red Sea)에서는 쉽게 접해 보지 못했던 에티오피아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남미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쇼멧 에비뉴(Shawmut Ave.) 477번지에 위치한 오리오코(Orinoco)를 추천한다. 베네수엘라 스타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스페인 레스토랑 토로(Toro)는 파에야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타파스로 소문난 맛집이다. 예약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면 긴 줄은 기본이지만 스페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 추천한다. (주소: 1704 Washington St. Boston, MA). 치즈나 와인, 하몬(스페인의 대표적인 숙성 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쇼멧 에비뉴 268번지에 위치한 식료품점 포마지오 키친(Formaggio Kitchen)도 잊지 말자.

사우스 앤드가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아트 갤러리와 예술가들의 작업실, 그리고 빈티지 마켓. 이 모두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소와(SoWa)가 있기 때문이다. 소와는 사우스오브 워싱턴(South of Washington)의 줄임말로 사우스 앤드를 가로지르는 워싱턴 스트리트 남쪽 지역을 지칭한다. 원래는 제분소와 창고 건물이 모여있던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건물들을 개조해 스튜디오나 갤러리, 부티크 혹은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는 60여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업실을 개방한다. 장소는 450 Harrison Ave. Boston이며 보다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http://www.sowaartists.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빈티지 마켓을 비롯하여 파머스 마켓 및 오픈 마켓까지 열리는데, 푸드 트럭도 함께 모이니 하루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자세한 일정은 <http://sowasundays.com/>를 참고 하자.

▶ 뉴욕에는 소호(Soho), 보스톤에는 소와(SoWa)?

[htj@bostonkorea.com](mailto:htj@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mailto: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플랜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개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f (Lot size: 1.3 acre )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 뉴햄프셔 지지율 트럼프 35% > 부시 7% 샌더스 또 힐러리 앞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막말'과 '기행' 퍼레이드로 일관하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끝을 모른 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쥘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지율 상승은 커녕 아시아계 '원정출산' 발언 역풍에까지 휩싸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공개된 진보 성향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의 뉴햄프셔 주(州) 여론조사(8월21~24일, 공화당 436명·민주당 370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35%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11%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와 지지율 격차는 무려 24% 포인트에 달했다.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가 10%로 3위를 달렸고, 부시 전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각각 7%를 얻어 공동 4위에 그쳤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은 6%,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텍사스)·마르크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각 4%,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3%에 머물렀다.

뉴햄프셔 주는 대선의 해 1월에 첫 프라이머리가 열려 통상 '대선평향계'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단순히 한 개 주 여론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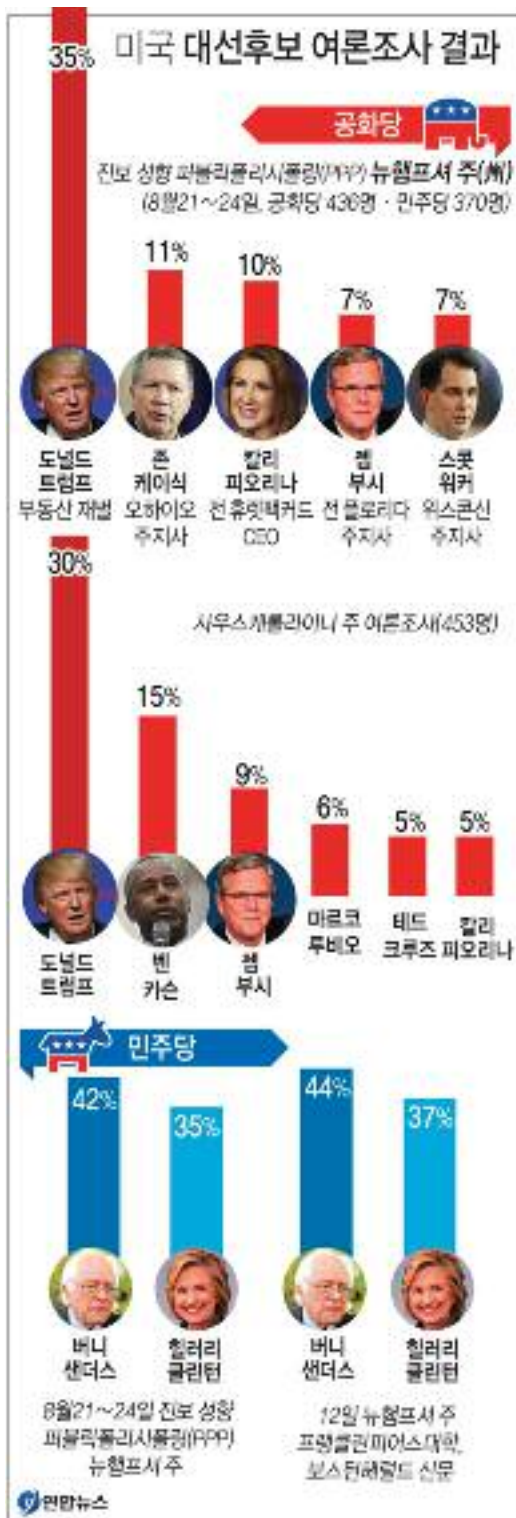
트럼프는 미 몬마우스 대학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여론조사(453명)에서도 30%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쳤다. 카슨이 15%로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부시 전 주지사 9%, 루비오 의원 6%, 크루즈 의원과 피오리나 전 HP 최고경영자 각 5%, 워커 주지사 4% 등이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역구로 삼아 20년 이상 정치활동을 해 온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4%에 머물렀다.

한편, 뉴햄프셔의 민주당 쪽 여론조사에서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42%를 얻어 35%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7% 포인트로 앞질렀다.

샌더스 의원의 지지율이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2일 뉴햄프셔 주에 위치



한 프랭클린피어슨대학이 보스턴해럴드 신문과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의원은 44%, 클린턴 전 장관은 37%를 각각 얻었다.

sims@yna.co.kr



## '앵커 베이비' 분노... 추락하는 쥘 부시

(워싱턴=서울신문) 김미경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쥘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앵커 베이비'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그가 지난 24일 멕시코 국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앵커 베이비' 발언을 해명하면서 아시아인의 원정출산이 '조직적 사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아시아계 의원들과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계 마이크 혼다(민주) 하원 의원은 25일 논평을 내고 "부시 후보의 발언은 모든 이민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권한이 약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수를 점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부시 후보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첫 중국계 하원의원인 주디 추(민주) 의원도 논평에서 "부시 후보의 발언은 이민자들을 고립시키려는 '외국인 공포증'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계 시민단체에 이어 한인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을 향해 '앵커 베이비'라고 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부시 후보는 발언을 철회하고 아시아인 커뮤니티를 향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인 2세들의 조직인 미주한인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부시 후보의 발언은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며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의 이민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시 후보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이 공개한 대선 풍향계 지역인 뉴햄프셔주 여론조사 결과 부시 후보는 지지율 7%를 얻어 공동 4위에 올랐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서도 9%로 3위에 그쳤다. 미 언론은 "부시 후보가 강한 이미지를 보여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앵커 베이비' 역풍에 휩싸이면서 지지율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chaplin7@seoul.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Palmort, Larkin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Elise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 상뿔함을 찾아 드립니다

월, 화 스페셜: Cut 남\$15/여\$25

- 날내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사술 지도

118 Cordish St. Southend MA 0211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eauty & Hair  
Mon-Sun 10am - 7pm  
Spc: 10am - 4pm  
머문사 구할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생방송 충격범, 살해 장면 직접 찍고 SNS로 퍼뜨려...충격 증폭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6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생방송 도중 발생한 충격 사건은 범인이 직접 찍어 올린 동영상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충격을 키우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살해범 베스터 리 플래내건(41)은 몇 시간 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살해 장면을 찍은 동영상 상을 올렸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그가 인터뷰를 하는 WDBJ의 엘리슨 파커(24)와 애덤 워드(27) 기자에게 다가와 파커와 오른손에 든 총을 한 화면에 잡고서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플래내건이 기자 시절 사용했던 가명인 브라이스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이 계정에는 "충격 장면을 찍었으니 페이스북을 보시오"라는 내용 외에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트윗도 올라와 있었다.

영상이 확산하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플래내건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이 내려받아 다시 올린 영상들이 유튜브에 남아 있는 상태다.

WDBJ의 동료와 많은 네티즌들은 관련 내용을 리트윗하거나 영상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기술정보 회사인 엔드포인트 테크놀로지스 어소시에이츠의 로저 케이 대표는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참수 장면을 유포하는데 소셜미디어



베스터 리 플래내건(41)은 몇 시간 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살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

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이 사적인 이유로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제프리 리버만 컬럼비아대 정신과 교수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총을 쉽게 가질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우리 문화의 특징들을 모두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인트존스대 심리학 교수인 레이몬드 디취세페 박사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매우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고 소셜미디어는 자신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신원이 공개돼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 동영상 상이 올라왔으며, 이 범행은 최대한 널리 퍼트리려고 최대한의 공포를 심어 주기 위해 교묘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그전에도 TV를 통해 사람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등장했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과 달리 살해범이 원했던 대로 보고, 공유할 수 밖에 없는 수천, 수백만 명의 SNS 사용자들에 의해 널리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hee@yna.co.kr



## 미국 LA국제공항서도 우버 영업 합법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의 서부 관문인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버(Uber)나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A 시 의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LA 국제공항 측이 요청한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운영 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찬성 9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LA 국제공항에서는 출국하는 승객에 한해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허용해왔다.

시 의회는 이번 안건을 의결하면서 차량공유 회사들이 운전자의 신원조회와 차량 정기점검, 장애인 승객 차별 여부 등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도 삽입했다.

이에 따라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 회사들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택시와 셔틀버스, 리무진 등과 함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jongwoo@yna.co.kr

## 미국 페스트 확산...11명 감염·3명 사망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미국에서 페스트가 확산하면서 올해 환자가 11명,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CDC는 올해 미국 내 페스트 감염 사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다고 의사들에게 경고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2001~2012년 미국 내 페스트 환자는 연평균 7명, 사망자는 1명 미만이었으며, 올해 환자 숫자는 지난 2006년의 17건 이후 최대 수준

으로 알려졌다.

CDC의 매개체 감염 분과 소속 수의사 나탈리 크윙트 박사는 "사람들을 패닉으로 이끌고 싶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점은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환자 발생 장소는 콜로라도주 4명, 뉴멕시코·애리조나주 각 2명, 캘리포니아·조지아·오리건주 각 1명 등이다.

올해 유난히 페스트 감염 사례가 늘어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jhpark@yna.co.kr

# 힘 잃은 미국 9월 금리인상론...12월 인상여부 촉각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기준금리의 '9월 인상설'이 하얗게 질린 전세계 금융시장과 함께 퇴색해 버렸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를 넘어서 '실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연내 인상을 공언한 만큼, 오는 9월 대신 12월에 금리가 오를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단기간 내의 금리 인상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 연준에서는 미 경제가 저금리를 필요로 하는 '일시적 맞바람'을 맞고 있지만 곧 극복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보다 더 현실적인 가능성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블룸버그뉴스가 금융시장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음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28%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설문에서는 54%였다.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가며 적어도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기류 변화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계기로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중국 위안화 하락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의 대표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약 5.4% 하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0% 이상 미끄러졌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거나 영국의 FTSE 100 지수의 낙폭 역시 같은 기간에 각각 6%와 7%를 넘었다.

쫓겨온 불안이 떨치지 못하는 금융시장과는 별개로, 금리인상을 연준의

방침대로 적어도 올해 안에는 단행해야 한다는 시각 또한 여전하다.

미국 금융투자회사 색소캐피털마켓츠의 케이 밴-피터슨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더라도 (재닛) 옐런(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이유로 "시장에 통화정책이 좌우되도록 하는 일야말로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도 연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요 은행 중 한 곳인 웰스파고 역시 지난 주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와 유가 하락이 관심사였지만, 지난번(지난 7월 2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돼 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국 전미실물경제협회(NABE)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mihee@yna.co.kr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7%에 그쳤지만, 내년 이후로 금리인상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이보다 적은 17%였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약 2주간 급격하게 변해 버린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연준의 고민이 커졌으며, 이달 말 발표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수정치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미국 월간 고용동향을 통해 연준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오는 27일부터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릴 예정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 연례 경제정책회의(잭슨홀 미팅)에 옐런 연준 의장이 참석하지 않는 대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참석하지만, 2010년 2차 양적완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되기보다는 난상토론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텍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볼텍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http://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 11:30AM~12:00AM  
 103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견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청 "북 진정성 이산상봉이 첫단추"...남북관계 신중론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

NSC도 신중기조 재확인... "5·24 등 기존 입장변화 없다"

박 대통령은 개혁·경제 행보로 신속 전환 무게중심 이동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안보위기를 해소한 청와대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속도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여론의 관심은 후속 남북회담 및 5·24 조치 등 의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꼽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남북간 합의사항 중 우선순위와 관련, "당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며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5·24 조치를 해제할 것처럼 하면 이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과제로 보는 것은 이산가족들이 고통이라는 점 외에 남북간 6개 합의사항 중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내용 외에 이산가족 상봉이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합의사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이나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문제는 구체 사항을 앞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산가족의 경우 실무적 준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남북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초에 적십자 회담을 갖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대로 이행될지는 실제 상봉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 지적이다.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가 예정일 직전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13년 9월 25~30일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기로 합의했으나 직전(21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

사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실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점도 변수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계기로 남북간 대치 국면이 다시 조성되게 되며 이산가족 상봉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당국회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데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5·24 조치는 각각 박왕자씨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입장 표



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나아가 급격한 남북관계 개선 추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남북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북한이 추가 도발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원위치될 경우 현재의 호의적 여론이 비판 여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신중 기조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남북관계 관련 행보가 아닌 경제·개혁 행보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있다"면서 "(남북 간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남북 당국회담 등도 시간을 갖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의사항 이행과 정부의 대북 기조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

NSC 상임위는 5.24 조치 및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참모는 "이제 겨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어떻게 할지 설계도 하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arist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icy College
-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 (617) 338-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UG. 28TH - SEP. 3RD,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THE FRESHEST SEAFOOD SALE

Experience the FRESHEST SELECTION of QUALITY SEAFOOD

아침에 도착하는 싱싱한 수산물을 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 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6.99 (8oz./pkg.)
- WHITE BASS** 화이트 베스 \$2.99 (lb.)
- TONGTONGBAY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2.59 (1 lb./pkg.)
- FEMALE CAPELIN** 냉동 시사모 \$1.99 (lb.)
- SQUID** 냉동 오징어 \$1.99 (lb.)
- TONGTONGBAY HALF CUT CRAB** 통통배 절단 꽃게 \$4.99 (1.5 lbs./2L - pkg.)

**E-COUPONS ARE HERE!**

WANT E-COUPONS IN YOUR INBOX? CONFIRM YOUR EMAIL ADDRESS AT ANY LOCAL HMART!

마트 스마트카드 등록하시고 추석맞이 쿠폰북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자연간장**  
 CUSTOMIZE YOUR SOY SAUCE

자연 발효 숙성으로 맛과 향이 진한 해오름간장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세요.

##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CH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종가집**

- Fuji Apple** \$1.49 (lb.)
- Lago Grape** \$14.99 (Half Box)

**Golden Kiwi** 골드 키위 박스 \$19.99 (box)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29 (lb.)

**Organic Mixed Mushroom** 캐나다산 유기농 버섯 모음팩 \$3.99 (8oz./pkg.)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6.99 (lb.)

**Pork Baby Back Rib** 돼지 등갈비 \$4.99 (lb.)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냉동 소불고기 \$6.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별집 삼겹살 \$5.99 (lb.)

**Marinated Boneless Beef Short Rib** 양념 갈비살 \$9.99 (lb.)

**HARU HARU Med.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9.99 (15 lbs.)

**NISHIMOTO Sekka Premium Med.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9.99 (15 lbs.)

**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밭도둑 도시락 김 \$2.99 (Original/Parae/0.15oz. x 8ea./pkg.)

**CHUNG JUNGON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창 태양초 칠고추장 \$12.99 (6.6 lbs.)

**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꽂치 통조림 \$2.3 (14.1oz. ea./for)

**GOMPYO Pancake/Frying Mix** 고포부침/튀김 가루 \$1.99 (2.2 lbs.)

**HAITAI Honey Tong Tong Snack** 해태 허니 통통 \$2.99 (2.29oz.)

**WOONGJIN Morning Rice/Green Plum Drink** 웅진 아침햇살/초록매실 \$2.99 (1.5L)

**VITA SOY Soy Drink** 비타 소이 소이 드링크 \$2.5 (All Flavors/8.45fl.oz. x 6ea./pkg.)

**BINGGRAE B.B.BIG Red Bean Ice Bar** 빙그레 비비빅 \$3.99 (2.7fl.oz. x 8bars/box)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13.99 (20 rolls/pkg.)

**KINGSFORD Match Light Charcoal** 킹스포드 매치 라이트 차콜 \$7.99 (11.6 lbs.)

**YOBO HOME Ginseng Printed Spoon & Chopsticks** 여보홈 인삼 무늬 수저 세트 \$1.49 (1 Pair/pkg.)

**Food Tray No. 2** (Square) 식판 2호 (사각) \$5.99 (ea.)

**YOBO HOME Elec. 3-Layers Steamer** 여보홈 전기 3단 찜기 \$22.99 (XI-10115/ea.)

**ZOJIRUSHI Elec. Skillet** 조지루시 전기 전골 냄비 \$79.99 (EP-PBC10/ea.)

# 한미, 지난 6월 '작계5015' 서명... '북한 WMD' 공격적 제거 비중

UFG 연습 때 생화학 무기 피해 최소화 집중 연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미 양국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을 수립해 지난 6월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합의 서명하바왔다.

북한의 WMD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은 이번 작계 5015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한미 양국 군의 작전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습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면서 "개전 초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사상자 규모가 작년 연습 때보다



한미군 수뇌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미가 작계 5015에 서명했지만 각국 제대별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계 5015는 한미 양국 군이 실전에 적용할 작전계획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mailto:ljglory@yna.co.kr)



## "북 병력증강 심각한 상황" 미 한반도 전쟁계획 재검토

(서울=국민일보) 배병우 선임기자 = 미국 국방부가 최근 남북한 간 포격 사태 당시 북한의 병력 전개를 보고 한반도의 전쟁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의 선제공격과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공동 군 운용계획인 '작계 5027'의 재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포격 사태로 촉발된 긴장 속에 북한이 시도한 병력증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지휘관들은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갑작스러운 징후가 감지될 때 한국을 보호할 군사력 운용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북부의 미국 관리는 CNN에 미군 지휘관들과 군사 전략가들이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종류의 미군 병력이 유사시 한반도에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에 미군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 등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포격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자 침투해 오는 항공기를 탐지할 대공 레이더를 급히 가동했다. 또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에 포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 수상함과 잠수함 3분의 1 정도가 실전을 염두에 두고 동원되기도 했다.

중단거리 스커드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거나 몇 주 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할 준비를 한다는 징후도 감지됐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병력증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대북선전 확성기 가동을 중단하라며 최후통첩과 같은 시한을 제시한 의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서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어포스타임스'는 이날 미국 공군이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괌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마크 웰시 미국 공군참모총장은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괌의 앤더슨 기지에 파견한다"며 "우리 공군은 한반도에 상주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bwbae@kmib.co.kr](mailto:bwbae@kmib.co.kr)

## 한·미 '작계 5015'...한반도 유사시 북 핵·미사일 선제 타격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완성  
대량파괴무기 위협 대비에 초점  
기존 '5027'보다 신속·공격적



기존 작계 5027(왼쪽), 신규 작계 5015(오른쪽)

(서울=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 한·미 군당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하는 등 기존의 '작계 5027'보다 신속하고 공격적인 군사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6월 새롭게 작성된 '작계 5015'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작계는 전쟁 발발 등 유사시 한·미 군사력 운용과 관련된 큰 밑그림에 해당한다"며 "한·미 양국은 새 작계에 따라 제대별로 예비부대까지 적용될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연말까지 작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계 5015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계 5015는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새 작계 작성은 올해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께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작계 5015'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왔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위협의 증가 등 군사안보상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작계 5027은 주로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른 6단계 대응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발생하면 서울 북쪽의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뒤 미군의 증원 전력도 도착하면 전열을 정비해 반격에 나선다는 개념이다.

이번 작계 5015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의 확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미 연합전력이 국지도발에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지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당국은 이미 2013년 3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하 바 있다. 이번 작계 5015에는 당시 합의된 내용이 이후 상황 변화까지 업데이트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계 5027이 주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대한 대비에 맞춰졌다면, 이번 작계 5015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이전에 미리 국지도발 상황부터 한

-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가동할지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도 이번 작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적인 핵·미사일 공격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대비하게 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선제타격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 추진관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안보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침수작전'을 예시해 논란을 불렀다. '침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이 어렵게 군사충돌을 막고 조성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uh@hani.co.kr](mailto:suh@hani.co.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 아베·김정은 불참, 박 대통령 참석...주목받는 중 전승절 외교전

한중관계·북핵 문제 협조 등 고려해 결단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도 참관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26일 공식 확인했다.

미국 패권에 맞서는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이번 퍼레이드를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장면은 동북아 외교 지형에 만만치 않은 함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양대 핵심 동맹인 한일 정상이 이번 항일 전승기념 행사를 둘러싸고 보인 엇갈린 행보다.

박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 참관 결정은 중일간의 물밑 줄다리기에 끝에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승절을 전후로 한 중국 방문을 보류하기로 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아베 총리는 애초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을 성사시켜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대미 관계에 따르는 부담, 전승절 행사 성격을 둘러싼 중국과의 조율 불발 등 탓에 결과적으로 방

중은 무산됐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등 서방이 불편한 시각을 보여 온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중일관계 진전에 따른 한국 외교 '고립론'도 한때 제기됐지만, 아베 총리가 결국 대중 견제를 위한 미일 공조라는 전통적 구도에 머물렀지만 박 대통령은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변화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해 '주도적, 선제적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중국과 전통적 혈맹관계인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불참하는 반면, 박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최고 귀빈'으로 참석하는 것도 변화된 한중·북중관계의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주요 플레이어 가운데 하나인 아베 총리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외교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어렵게 퍼레이드 참관을 결정한 것은 한반도 정세 관리에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결국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승행사 전날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형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 속에서 상황 관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기로 했다

를 위한 양국의 전략적 소통 필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서도 진전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해 의전서열 문제가 해소된 것도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 조야 일각에서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중국 경사론'을 어떻게 불식하느냐가 또 다른 외교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미측과 군사 퍼레이드 참관을 포함한 전승 행사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략적으로 세부적 사항까지 충분하고 완전한 소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열병식 참석 직전인 이달 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북극회의 참석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설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이례적으로 일찌감치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발표 이후에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 참석 여부에는 신중을 기한 것도 미측

의 정서를 감안한 배려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가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중추로서 북핵 및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따른 대응,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중관계 발전,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 유도 및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가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키면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kimhyoj@yna.co.kr

## 박대통령 중 열병식 참석 '돌출행동'...불편한 일 언론 시각

요미우리신문,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 자세가 더욱 부각... 박 대통령만이 돌출된 형태이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 매체들은 27일 이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청와대 발표를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 자세가 더욱 부각됐다. 미일은 박 대통령의 참여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방 선진국 정상들이 참여를 보류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만이 돌출된 형태이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1월 하순 방한한 왕양(汪洋) 부총리

가 처음 박대통령의 기념 행사 참석을 요청했으며, 5월께 열병식 참석도 바라면서 외국 정상으로서는 가장 먼저 초청장을 전달하는 등 외교 공세를 펼쳐왔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열병식 참관의 대가로 한국에서 연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참여의사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자리를 이용해 현안인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 미국이 원하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일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비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열병식에 일본이나 서방 주요국이 정상급의 참석을 보류했지만 경제와 북한 문제 등

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하고 싶은 한국은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참석 배경을 진단했다.

신문은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 미국이 난색을 표했을 뿐 아니라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 보수층에서도 불참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는 "방중 일정 발표 전에 10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으며, 26일 이달 말 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를 발표한 뒤 열병식 참석을 공표하는 등 한미 동맹이 중심이라는 입장을 안팎에 보였다"고 전했다.

진보적인 아시아신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데다 북한 문제에서도 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하면서, 윤병세 외무장관은 오는 30~31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북극 외교 장관회의에서 열병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연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식 참석 등에 대해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안보 관련 법안의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는데다 미국 등의 정상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llday33@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방, 탄력, 밝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용 시세이도 보스톤  
컨설팅/마케팅  
**홍은희**

# '아슬아슬' 연찬회, 해마다 구설수...올해는?

민정당때 '단합대회'로 시작... 2008년 이후 당정청 정책공조

(서울=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지난 25~26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는 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민정당) 시절부터 이어온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행사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열리는 새누리당 연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격도 자연스럽게 변했다. 당초 연찬회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현 당협위원장)들이 주축이 됐다. 국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보다는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단합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다. 2007년 대선 이후 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을 앞두고 정책공조를 위해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청와대 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 연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대선이 치러진 2012년을 제외하면 정책공조에 무게를 실은 의회 중심 연찬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이번 연찬회에도 대부분의

정부부처 장관 및 차관이 연찬회에 참석해 각 상임위원회 분임토의에 참석했다. 청와대 인사들도 각 정책별 상임위에 참석해 정책공조에 나섰다.

올해 연찬회는 시기나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연찬회 당일 새벽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문을 마련하면서 남북 긴장상태가 풀렸다. 의원 만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 오찬을 갖기로 한 사실을 공지하면서 다소 소원했던 당·청관계가 회복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연찬회에서 끊이지 않았던 구설수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저녁 의원만찬 자리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쳤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법 위반 여부와 관련없이 선거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금주령이 내려지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저녁 식사 도중 김무성 대표의 여기자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문제가 됐다.

1997년 9월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당내분란



김무성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오히려 더 증폭됐다.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이희창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연찬회에서도 봉합하지 못한 것.

이후 이 지사의 탈당 및 대선출마로 인한 보수진영의 분열은 결국 헌정 이후 처음으로 진보진영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연찬회와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매년 한차례 이상 진행한다. 의원 워크숍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새정치연합의 행사는 대체로 총선 직후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다.

당 내부 분란이 있는 경우에도 단합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지난 6월에 열린 워크숍이 이 같은 성격의 자리다. 다만 그 시기나 일정, 형식이 대체

로 명확한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다. 교외에 장소를 정하고 1박2일 형식을 따를 때도 있지만, 국회에서 수시간만에 이를 끝내는 경우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당일치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야, 정종섭·최경환 부적절 발언 장관에 '십자포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위에 고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야당은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자진사퇴·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총선이 과연 공정하게 치뤄질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축구경기로 치면 선수와 스폰서가 짜고치는 판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필승하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인가 되돌아볼 수 없다"며 "이런 게 합법이라면 전 부처 장관이 다 모여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것도 합법이 될 것이고, 아예 당정청의 필승 결의대회를 여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 선거관련 금지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주어 없다는 식의 공색한 변명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라는 건배사를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서 두 장관 발언의 합당성 여부와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두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탄핵, 검찰고발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했다가 탄핵을 당했다"며 "(두 장관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오

전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법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일부 장관들의 꼬락서니가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에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믿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연찬회에서 정 장관은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했고,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pej86@news1.kr

## 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 유감 표명할 부분 없다"

야 25일 연찬회 중 최 "잠재성장률 3% 복귀 총선에 도움" 선거법 위반

최 "당원이 당 행사에 가서 말한 것"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제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힌 부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당원이 당 행사에 가서 한 이야기는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고 밝혔고, 최 의원이 최 부총리의 회의장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일방적 정치공세에는 자세를 고칠 생각이 없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이야기를 야당이 정치공세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dearpure@news1.kr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보스톤  
보스

안녕하세요. 보스톤코리아는 한인 여러분만 보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미주의 한인신문으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해온 저희가 최고의 한식 전도사 한식 식당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는 한식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보스톤 한식당 내 선의의 서비스 및 음식 맛 경쟁을 장려하고자 보스톤 현지인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한식당을 선정합니다. 다만 한식 식당은 매사추세츠 주내로 한정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곳에 이렇게 많은 한식당이 한식을 미국에 전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1등상**  
한국 왕복  
비행기표

후원: KFood with  
**POP**  
Sudat  
**AUGUSTIN**

KFood with  
수불  
한식당

보스톤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

#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지금 참가하세요!

9월 18일 응모 마감

(18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산(벌링톤)        |
| 가주순두부(울스톤)      | 서울설령탕(울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울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엔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리수 레스토랑(레언스터)   |
| 다빈(렉싱턴)         | 야수(브루클라인)        |
| 다오라스시(브락톤)      | 영차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퍼스시(울스톤)        |
| 매주(서버빌)         | 우리(알링톤)          |
| 명동일번지(울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토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시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울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메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울스톤)       | 코리안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빔(울스톤)         | 한국가든(울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울스톤)         |
| 사부로(뉴튼)         | 전320(브루클라인)      |
| 사부로스시바베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017-254-4854)로 연락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당 명단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시고,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1명에게는 애플워치를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식당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아래에 주소 보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181 Harvard Ave, Suite 11 Boston, MA 02134  
응모 투표를 불가하며,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됩니다.

인회



민주 평등 보스톤지역 협의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학교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보스톤 재향 군인회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of Padua Korean Church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재입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 2015년 9월 7일까지  
 2015년 9월 20일 - 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건축된 기둥과 천막의 집입니다 (요한 3:15)

담임목사: 우시창  
 ☎ 교회: (781) 715-0571    ☎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독한  
 (Broker/Owner of RE)      www.ganai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탈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8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F.S.  
 안양대학교 대학원  
 한겨레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hushi.com

아시아: 다양한 종류의 요리와 술, 만찬, 파티, 웨딩, 생일 파티, 축하 파티, 잔치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시와 롤: 다양한 종류의 스시와 롤, 스시, 롤과 김밥을 제공합니다.

아시아 풍요스 김밥

특별하게도 노년세대분, 보스톤에 위치한 저의 오빠스시에서 상차하고 맛있는 아시아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자랑스러운 세상이입니다.

617-202-3808    113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전혀 미처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귀어라,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영접하십시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공생, 부활을 영접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영혼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초청 주일오후 12:30  
 속회초청 수-주일 속회별  
 영혼초청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97  
 www.growwithus.org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의 임무를 감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는 보스톤 언론 역사를 공평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hokp@koreatow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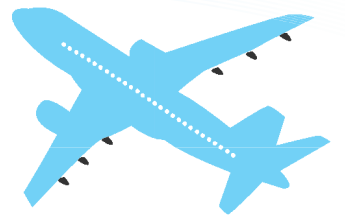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 백내장, 녹내장, AS(초음파) 초음파검사, 현탁액여과, 세균 수형에 검사  
-25만원 → 20만원
- 2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3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교시 + 통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안과 및 내과질환 환자도 가능!

### 속(?) “좁은 여자가 좁은 아름다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수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수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트닝/임플란트/명품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순 수술 200~400만원

###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정삭형성술, 정관수술, 정관박관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절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안면거상술 (목 포함)	매쉬 리프트
-700만원 → 500만원	-800만원 → 6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하안검	중안면 거상
-20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300만원 → 20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이메일 huramceo@hura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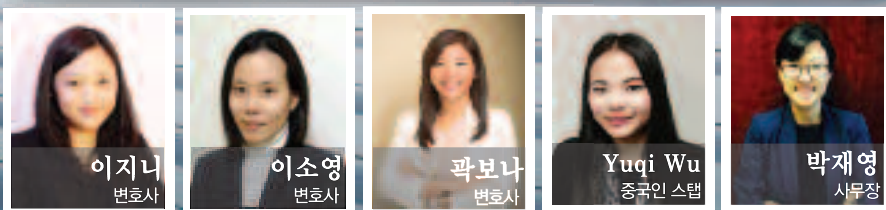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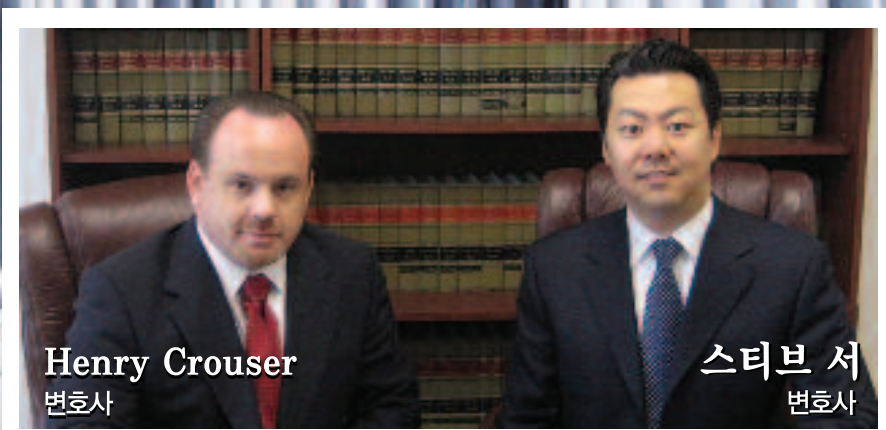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재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2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3801 sf.  
\$25k price reduction  
2 family or bonus space  
이현주 401-935-3397



\$369,000  
Sharon, MA  
3 Beds, 1 Bath, 1426 sf.  
Finished basement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28,000  
Lexington, MA  
3 Beds, 1.5 Baths, 2100 sf.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8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 Rental**  
\$2,950  
Cambridge, MA  
2 Beds, 1 bath, 1142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700  
Lexington, MA  
2 Beds, 2 baths, 1318sf.,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Beds, 2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450  
Acton, MA  
2 Beds, 2.5baths,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b>Restaurant</b>  \$479,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75,000 <b>Boston, MA</b>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young O. Kim 617-75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Pak 617-304-7001	<b>Commerd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Pa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b> SJPak 617-304-7001	<b>병원건물</b>  \$800,000 <b>Worcester, MA</b> 6552 sf, 38대 주차공간 Un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 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Sushi Bar</b>  \$90,000 <b>Newton, MA</b> Good Location 성장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290,000 <b>Somerville, MA</b> Famous Restaurant, As-is SJPak 617-304-7001	<b>Restaurant</b> \$440,000 <b>Boston, MA</b> Well-Established, As-is SJPak 617-304-7001	<b>Restaurant</b> \$2,600,000 <b>Dedham, MA</b> Legacy Place Center Sue Pong Tsai 617-752-8642
<b>Restaurant</b> \$490,000 <b>Boston, MA</b> 발전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SJPa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8,000 <b>Cambridge, MA</b>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셋 가격, 지역, 방객수를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5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가나안 부동산**  
**손동한**  
 Director of RE  
 www.cd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son2323@gmail.com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34 August 28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행복들이슈러오고싶은카페  
**피치하우스 (Peach House)**  
 업소탐방 301  
 피치하우스  
 154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782-1811

Welcome, **피치** 한국 방송 3시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회원들 비교해 보세요  
 10 TV 24시간 시청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청  
 50%로 낮추고 20%는 1시간씩만 시청  
 방송3시와 케이블 함께 계약  
 1주일만 10% 할인  
**무제한 시청 할 \$39.99**  
 617.955.9112  
 자주 연락주세요  
 사서 보내주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올스톤 하버드 에비뉴의 유일한 PC방 '비트윈 아워즈 (Between Hours)'가 '피치하우스 (Peach Hous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업한다.

피치하우스는 다양한 커피종류(라떼, 카푸치노, 프라푸치노)를 포함해 프로즌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빙수, 슬러시, 밀크티, 스무디 보바, 각종 차(Tea) 등 웬만한 디저트 카페의 메뉴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피치하우스'의 팔빙수는 한국의 대학가에서 즐겨 먹었던 팔빙수의 맛과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팔빙수에는 바나나, 수박, 키위, 딸기, 블루베리, 망고, 파인애플 등 다채로운 과일들 위에 팔과 아이스크림이 얹혀 나온다. 과일 종류별로 모두 신선해 더 생생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은 딸기, 바닐라 외 그린티 등의 종류가 있다. 특별히 그린티 아이스크림은 피치하우스에서 직접 만들어 손님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단골 손님인 음악가 케이트 오코넬(Cate O'Connell)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피치하우스만큼 그린티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하는 곳이 없다"며 "이 동네에 오면 항상 그린티 스무디 보바를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샵의 바나나 스플릿(Banana Split)은 팔빙수와 더불어 썩쩍을 이룬다. 옛 미국 아이스크림에서 볼 수 있었던 바나나 스플릿은 카라멜과 초콜릿 풍두에 살짝 섞여 나와 한층 더 부드러운 맛을 선사한다.

피치하우스 사장 마크 친(Mark Chin)씨는 "더 이상 PC 방의 모습이 아닌 새롭고 깔끔한 이미지로 운영할 것이다"며 "젊은이들이 자리를 채워 그 에너지가 피치하우스에서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 씨는 현재 노스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 근처에 위치되어있는 라이스 볼(Rice Bowl)을 운영하고 있다. 친 씨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피곤해도 에너지가 넘쳐난다"며 "학생들이 피치하우스를 즐겨 찾아 많은 추억을 남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친 씨는 "마실 수 있는 메뉴와 더불어 주말을 새롭게 개조해 모던한 중국음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식 메뉴는 알려줄 수 없으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세련된 중국음식이다"고 덧붙여 기대를 높였다.

친 씨는 "이번에 새로 개업한 피치하우스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 넘치는 결심을 보였다.

피치하우스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보바나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보드게임이나 젱가(Jenga) 등 더 많은 게임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치하우스의 평일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며 주말 영업시간은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PM, 달달목사 유영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치 앤 앨버 교회	978-274-2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진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형태역점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치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보석

국제보석사	617
-------	-----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아기보면서 가사일 도와주실 분 구함.  
웨스트포드 지역, 풀타임/파트타임.  
T. 617-755-1535

데드햄에 있는 네일샵에서 Type-1 or Type-6 라이선스 소지한 네일테크니션 구함. (Full Time) T. 312-235-9660

레딩에 있는 폴리쉬드네일샵에서 함께 일할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978-898-7953, 603-401-158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Plymouth에 위치한  
네일샵용 매매**

3,000 SF.  
8 페디큐어 체어  
8 테이블  
2 왁스 톨  
Asking Price: 380K

대 자비한 새로운 약에서 판매를 판매합니다  
617 223 7836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노쇼어 세탁소 매매, 140K+90K Non Perc+셔츠, 판매조건 협의 가능  
T. 978-979-4541

(금매) 벌링턴/사우스쇼어물에 있는 헤어약세사라가게 팝니다, 좋은가격  
T. 312-350-0159

**N [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금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 [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물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 [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 [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 [금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옷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 [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 [매 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시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 [패션 디자이너 구인]**  
-패션/그래픽 디자이너 를 원합니다 -파트타임, Duluth 지역 -한국어와 영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T. 224-392-4209  
224-251-8805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 송강호의 영조 · 유아인의 사도세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여러 차례 극작품으로 만들어진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또 한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다.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국민배우' 송강호와 '20대 대표 남자배우' 유아인이 영조와 사도세자로 호흡을 맞췄다는 점만으로도 주목받는 영화 '사도'다.

내달 개봉할 예정인 '사도'는 56년에 걸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8일간 모습에 집중해 펼쳐나간다. 완벽한 왕의 모습을 추구하는 영조와 아버지의 정을 그리워하는 사도세자의 비극적 부자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감독이 "카메라 앞에서

단 1초도 영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소개한 송강호는 군주로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모습을 중심으로 영조를 그려나갔다고 설명했다.

"저는 아버지로서 엄격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 군주라는 게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붙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그게 배우로서 끌리는 부분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내려놓을 수 없는 군주로서의 자존심이죠. 앞서 훌륭한 선배들이 영조를 연기했지만, 우리 영화는 8일간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펼쳐지므로 심리적 과장보다 현실적인 영조의 모습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유아인은 사극을 넘어 세대간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제껏 많은 작품에서 그려졌던 사도세자의 얘기가 얼마나 차별성 있게 그려질지가 중요했어요. 시나리오 보는 내내 신선하고 '와, 이랬어?'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세상 모든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며 같은 운명을 걸어야 하지만, 결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이인 두 세대의 모습을 왕과 세자가 하나의 표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감독 역시 과거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사극의 존재 의미를 강조했다.

cherora@yna.co.kr



## SBS '용팔이' 수도권 20% 돌파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집 나간 시청률이 돌아왔다."

주원과 김태희가 주연을 맡은 SBS TV 수목극 '용팔이'가 지난 19일 방송된 5회에서 전국 시청률 18%, 수도권 시청률 20.3%를 기록하며 안방극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5일 첫회에서 바로 두자릿수 시청률인 11.6%를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한 '용팔이'는 2회에서 14.1%로 치고 올라온 데 이어, 4회는 전국 16.3%, 수도권 17.8%로 올해 방영된 평일 밤 드라마 중 최고를 기록했다.

'용팔이'의 이런 질주는 시청률이 10% 안팎을 오가는 지상파의 주중 밤 10시 드라마 시장에서 모처럼 만에 찾아온 '대박' 성적이다.

TV를 통한 본방 시청층이 줄어들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과 VOD 시청이 늘어나면서 주중 드라마의 시청률이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용팔이'의 시청률은 재미만 있다면, 시청률도 언제나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춘 드라마의 경우 시청률이 낮아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것으로 인기를 가늠해왔는데, '용팔이'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률까지 끌어모으는 힘을 과시하며 시청률 저조로 의기소침해

있던 방송가에 고마운 활력소가 됐다.

'용팔이'는 재벌가 상속녀를 인위적으로 혼수상태에 빠트린 음모와 여기에 가담한 의료진의 탐욕, 돈이 필요해 밤이면 불법 왕진을 다니며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선보인 의과의사의 이야기가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며 긴장감을 유발한다.

초반 4회에서는 상속녀 한여진을 연기하는 김태희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용팔이' 김태현 역의 주원이 등에 반짝 서에 반짝 돌아다니는 현란한 단독 플레이로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 드라마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김태희는 4회 말미 '잠자는 병실의 미녀'에서 깨어나 5회에서 주원과 교감을 시작하며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한여진이 깨어난 이후 드라마의 속도감은 액션이 잇따라 펼쳐진 1~4회에 비해 많이 떨어졌지만, 김태희에 대한 시청자의 호기심과 관심은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용팔이'는 이후 한여진이 김태현과 손잡고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을 병원에 감금하고 유린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pretty@yna.co.kr

## '언프리티 랩스타 2' 효린, 래퍼 출사표

(서울=이데일리 스타) 강민정 기자 = 국내 최초 여자 래퍼 서바이벌 Mnet '언프리티 랩스타' 출연래퍼 11인 전원이 공개됐다. 27일 Mnet은 '언프리티 랩스타 2' 개인티저의 마지막 두 주인공 효린, 수아의 모습이 담긴 티저 영상 (<http://tvcast.naver.com/v/506348/list/45938>)을 공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먼저 파워풀한 보컬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래퍼로 완벽 변신한 효린이 눈길을 끈다.

공개된 티저에서 효린은 색시하면서도 감각적인 랩핑을 선보이며 이전과는 또 다른 매



력을 발산하고 있다. 티저를 통해 효린은 "잘할 수 있다. 실력으로 지적을 듣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보여드리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함께 밝혔다.

시즌 2에는 헤이즈, 캐스퍼, 애쉬비, 효린, 길미, 안수민, 예지, 키디비, 수아, 유넌, 트루디 등 총 11명의 여자래퍼가 출연한다.

eldol@edaily.co.kr

## '이시영 동영상' 사설정보지 최초 작성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7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은 증권가 정보지(짜라시) 형태로 삼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



한 결과 신씨가 문제의 글을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8월 17일 ~ 8월 23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4.5%
2	MBC	무한도전	21.1%
2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21.1%
4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19.2%
5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18.9%
6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8.6%
7	KBS1	KBS9시뉴스	17.9%
8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4.1%
9	KBS1	가요무대	13.0%
10	KBS1	전국노래자랑	12.9%

##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2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4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5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6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7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8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9	SBS	SBS월화드라마(미세스캡)
10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오빠차	인크레더블
02	사이먼 도미닉	사이먼 도미닉
03	거북선 (Feat. 팔로알토)	자메즈, Andup
04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BIGBANG
05	기슴 뛰도록	SG 워너비
06	위잉위잉	혁오 (hyukoh)
07	레옹	박명수, 아이유
08	찢어 (GD & T.O.P)	BIGBANG
09	맏소사	황태지
10	I Feel You	원더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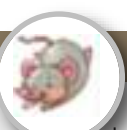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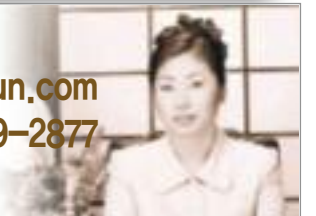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8		3	5	6				
			8		1			4
1					9	6		
				8		4	9	
6		9		4		2		7
	3	2		9				
		4	6					1
7			9		3			
				5	8	3		2

8월 30일 - 9월 5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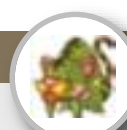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 쥐띠 | 재물을 볼릴 수 있는

● 운수: 전체적인 흐름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재물을 볼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마음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



### 소띠 | 한시름 덜게

● 운수: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면서 한시름 덜게 되겠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금전: 큰 것을 얻으려면 대범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클수록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커집니다. ●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크게 달라집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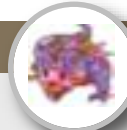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 범띠 | 더 깊어지기 전에

● 운수: 이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야 합니다. ● 금전: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칼에 잘라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애정: 자꾸 어긋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 3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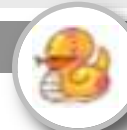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 토끼띠 |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 운수: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틀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 금전: 사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사거나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4일 길일. 3,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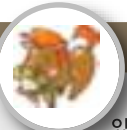
### 용띠 |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 운수: 운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면 모처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 애정: 혼자만의 감정내일 알았는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0, 5일 길일. 3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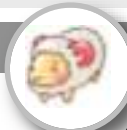
### 뱀띠 |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 운수: 그냥 밀기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뭔가 구입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분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갈등이 있겠습니다. ● 애정: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보기도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 4일 길일. 30, 5일 주의.



### 말띠 |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 운수: 가족 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 금전: 당장 들어오는 이득보다는 길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훗날에 가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4일 길일. 3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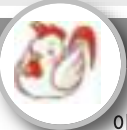
### 양띠 | 참고하면 도움이

● 운수: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얻은 인생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동구매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쪽을 택하자니 이 사람이 걸리고 저쪽을 택하자니 저 사람이 걸리니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1, 3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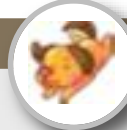
### 원숭이띠 | 잘 새겨들고

● 운수: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들고 당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 금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 그토록 욕심내고 얻고자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 5일 길일. 30,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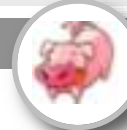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 닭띠 |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 운수: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내 돈도 소중하지만 남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돈을 아끼려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 개띠 |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 운수: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리전에서 이겨야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서로 웃을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 돼지띠 |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 운수: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습니다. 허니를 받기 위해서 여럿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 애정: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답답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 '슈퍼스타 K7' 2회 출연자 수준급 실력

(서울=TV리포트) 김풀잎 기자 = Mnet '슈퍼스타K7' 2회가 베일을 벗었다.

선공개된 영상의 주인공은 훈훈한 미소가 돋보이는 22살의 청년 지영훈. 평소 소심한 성격이지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를 때면 목소리와 동작이 커서 아버지가 '집승' 같다고 말할 정도로 180도 변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다.

지영훈은 'Sting-Englishman In New York' 을 선곡, 라이브 연주와 함께 파워풀한 목소리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팝송에 한글 가사를 적절히 섞어 남다른 매력까지 함께 선보이고 있는 것

이 날 심사에 참가한 윤종신, 김범수, 가인, 허각은 모두 미소를 띄고 지영훈의 모습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김범수는 지영훈의 노래에 리듬을 타고 가인과 허각은 놀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해 눈길을 끈다. 특히 선공개 영상 말미에 윤종신은 "어... 저기 뭐지?" 라고 운을 띄워



본방송에서 공개될 그의 촌철살인 심사평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슈퍼스타K7' 제작진은 "지영훈은 노래를 할 때면 처음 보았을 때 생각지 못했던 반전 매력이 물씬 느껴져 더욱 매력적이었다.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보는 사람도 즐겁게 만드는 점이 인상적이어서 선공개

주인공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2회에는 선공개된 지영훈, '더 보이즈' 준우승자 디아 프램을 비롯 다양한 장르와 깜짝 놀랄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실력과 지원자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2회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leaf@tvreport.co.kr

# 김구라 이혼후 첫 심경고백

"아들 동현에게 제일 미안"

(서울=스포츠서울) 이지석 기자 = "누구보다 아들 동현에게 너무 미안하다."

방송인 김구라가 합의이혼 사실을 알린 뒤 가진 첫 방송 녹화에서 자신의 이혼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구라가 가장 미안해한 이는 아들 동현 군이었다.

김구라는 지난 26일 자신이 공동 MC를 맡고 있는 예능 '라디오스타' 녹화에 정상적으로 참가했다. 방송 초반 김구라는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누구보다 아들 동현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동현이 다행히 부모님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 고맙기도 하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어느 때보다 삼엄하게 외부 인력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혼후 첫 녹화에 나선 김구라를 배려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녹화분은 9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앞서 25일 김구라는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 집안의 문제가 불



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하지만 낯선 다툼이 계속 될 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더라.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왔다.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고 밝혔다.

김구라는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동현이가 성인이 되어서 내린 결정은 존중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이혼은 하지만 아내의 빚 문제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동현 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는 입장을 전했다.

monami153@sportsseoul.com

# 지드래곤-키코 결별,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가사 재조명

(서울=TV리포트) 김명석 기자 = 지드래곤 키코가 결별한 가운데 빅뱅의 곡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가사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지드래곤 키코의 결별 소식이 전해졌다. 지드래곤 키코의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바쁜 일정 탓에 소원해졌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지드래곤 키코의 결별 소식이 보도

되자 빅뱅의 곡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의 가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는 지드래곤, 테디가 작사, 작곡을 맡은 곡으로 지난 5월 공개됐다.

빅뱅은 지난 4일 방송된 네이버 V앱에서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에 대해 "이 곡은 중의적인 표현이 담겼다. 사랑하지만 끝을 아니까 더 깊은 사랑에 빠

지지 말자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에는 '우리 약속하지 말아요,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말 만든 진심이야, 그대 좋아해요, 날 가지려 하지 말아요, 그저 이대로 조금만 있어요, 갈수록 더 마음 아파지게 왜'라는 가사가 담겼다.

kms0228@tvreport.co.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8 • GG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랑? 불륜? 사람 이야기 ... '애인있어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기억은 없는데 사랑했던 사람을 보니까 심장이 뛰어요. 그게 이 드라마의 전부인 것 같아요."

'시정률의 여왕' 김현주가 전혀 다른 성격의 1인 2역에 도전한다.

오는 22일 첫 방송되는 SBS TV 주말극 '애인있어요'에서 김현주는 야망 많은 재벌가 며느리 도해강과 그녀의 헤어진 쌍둥이 동생 독고용기를 연기한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해강은 용기를 짝사랑해온 백석(이규환 분)을 만나게 되면서 용기로 살아가게 된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 죽었던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반전, 헤어졌다 재회한 쌍둥이 재회 등의 설정은 자칫 '막장' 같아 보인다.

그러나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애인있어요'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출연진들은 "막장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주는 "배유미 작가님과 작품을 같이한 적도 있고 최문석 PD의 팬이기도 한데 두 분이 절대 작품을 막장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제 자신도 사랑에 더 가까운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창 SBS EP는 "한없이 악한 여자가 타의로 한없이 착한 여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보신다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SBS | 용팔이        |
| 5  | SBS | 돌아온 황금복    |
| 6  | MBC | 딱 너 같은 딸   |
| 7  | KBS | 가족을 지켜라    |
| 8  | MBC | 이브의 사랑     |
| 9  | SBS | 미세스 캅      |
| 10 | SBS | 어머님은 내 며느리 |

###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부탁해요, 엄마 |
| 2 | KBS    | 별난며느리    |
| 3 | SBS    | 애인있어요    |
| 4 | CJ E&M | 슈퍼스타 K7  |
| 5 | CJ E&M | 처용2      |

###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카트       | 염정아/문정희 |
| 2 | 쓰리 씬머 나잇 | 김동욱/임원희 |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애가 '카트'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카트'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한다.

부지영 감독은 여러 캐릭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은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10대 태영이 학교와 사회에서 겪는 차별, 30~40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어려움, 뼈 빠지게 일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50~60대의 아주머니들...

요컨대 '카트'는 10대부터 60대까지 가난과 불안이라는 '블랙홀'에 빠진 서민들의 씁쓸한 초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살풍경을 세밀하게 보여

준다. 영화는 몇몇 몽클한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장면은 거개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보다는, 노동자들이 겪는 일상 속에서 빛어진다.

다소 선동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영화의 온도가 뜨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업영화 진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카트' 같은 영화의 제작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염정아 등 주연 여배우들의 호연뿐 아니라 장편영화에 데뷔한 '엑소' 디오(도경수)의 연기에도 합격점을 줄 만하다.

buff27@yna.co.kr



#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 \$39.99



본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02) 200-0000 또는 The Best OnDemand 4, 7, 0 또는 TV에 문의하십시오. 본 서비스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공됩니다.

The Best OnDemand, TBO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엘리트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95 MI
- 3. Belmont 엘리트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라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통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박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박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프 매케:**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물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리고 최근 한 세기의 미국사

“미국에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대형 은행 해체와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극소수 재벌에 편중돼있는 부를 중산층과 빈곤층에 재분배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를 확대·보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단일공보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옳다.” (미 대선 샌더스 돌풍 이어지나, 집회에 1만명 모여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2015년 7월 3일)

민주-공화 양당이 중앙정치를 독식하는 미국에, 미국 예외주의가 논제가 될만큼 좌파나 사회주의 기반이 미미한 미국에, 북유럽 사민주의 색채를 내세우는 좌파-무소속 정치인이 설 자리가 있을 줄이야. 필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존재감이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와, 아버지-형을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쟁 부시와, 민주당 후보 뒤편을 당연히 그녀의 것이 되리라고 여겼던 힐러리 클린턴의 그것보다 크게 느껴질 정도다. 상위 1%의 부를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해야 하고, 대형 금융 기관을 규제해야 한다고, 월가랑 팟짱뜨자는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라니!

기업의 대규모 후원이 없기때문에 샌더스 진영의 경선자금 모금 총액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샌더스 캠프는 힐러리 진영의 1/3에 못 미치는 15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신선했던

것은 샌더스에게 지갑을 연 사람들 대부분이 200 불 미만의 소액 기부자들이었고, 그들의 평균 기부 액수는 33달러라고 하는 대목이었다. 후원자의 수로 전체 기부자의 3%만이 소액기부자인 쟁 부시보다 훨씬 압도적이었다. 대선은 커녕 민주당 경선을 돌파하기도 힘들것 같은 그에게 “돌풍”이라는 말이 따라붙은 까닭일게다.

〈읍저버〉가 몇 주 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샌더스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가족, 성장과정의 에피소드 등 개인사를 통해 대중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다가가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샌더스 개인의 삶의 궤적은 그 자체로 지난 세기 미국의 “역사”를 함께 겪었던 많은 이들의 그것과 여러 모로 포개진다.

버니 샌더스는 1941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도 뉴욕에서 태어났다. 이 칼럼에서 몇 번 소개했다시피 2차 산업 혁명으로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했던 1880년 무렵,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했다. 이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가난한 동부 및 남부 유럽출신 노동계급 이민자들은 대도시 슬럼가의 텃밭 테너먼트 (좁은 공간에 건물 면적을 극대화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했다. 아마도 샌더스의 조부모들도 그들 중 일부였던 듯하다.

1921년과 24년 통과된 이민 제한법의 사실상 타겟은 바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주해왔던 샌더스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 도시의 빈민가에 거주하고,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리고 언어와 종교와 인종의 차이로 인해 노골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어쨌거나 그 당시 몰려든 이민자의 후손들이 현재 미국인구의 40%를 구성하고 있다. 브루클린에서 이민자 가정들에 둘러싸여 자란 샌더스는 “양질의 교육이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었기에 내 이웃의 이민자 가족들은 모두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고 회고한다. 가난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의 어린 시절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샌더스의 파격적인 제안이 등장한 배경이었을지도.

41년생인 샌더스가 브루클린 칼리지를 거쳐 시카고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하고 졸업했던 60년대는 미국의 격동기였다. 대학생 시절 샌더스는 청년 사회주의자 연맹 (Young People's Socialist League)의 일원이기도 했고, 반전, 비폭력,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1970년대 초반 출범했던 자유연합당 (Liberty Union Party)에도 참여했다. 인종 평 등 회의 (CORE: Congress of Racial Equality)와 학생 비폭력 조직 의회 (SNCC: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등 인권운동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샌더스는 흑인 인권운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남긴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의 현장 어딘가에도 샌더스가 있었다.

민권운동과 반전운동, 그리고 여성운동 등 마이너리티 운동이 활발하던 60년대의 격랑은, 이에 대한 반발로서 보수가 재결집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1968년과 72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거센 것 같지만) 침묵하는 미국인 다수는 여전히 보수” 라는 말로 “상처입은” 보수적 백인들의 표를 집결시켰다.

“기업에 대한 탈규제, 작은정부” 를 내세운 레이건을 당선시킨 1980년 대선은 미국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던 때다. 이무렵 샌더스는 버몬트주 벌링턴시의 시장으로서 정치인생을 시작한다. 샌더스는 이어진 몇 차례의 시장 선거에서 주류 정당 출신 후보들에게 승리했고, 1990년대에는 미의회에 진출한다. 샌더스의 의정활동 이력을 보니, 1990년대 이후의 미국 정치 이슈는 보다 다각화되어 금융 규제,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부터 동성애, 출산선택 (Prolife vs. Prochoice) 등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었다는 점이 새삼 각인된다. 어쩌면 샌더스는 지금 레이건의 프레임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샌더스에게 민주당 경선이라는 1차 관문을 뚫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레이건의 프레임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그 점에서 샌더스의 선전을 기원하기로 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하더니만. 장미와 녹색대문이 어울리는지 그건 따져 보지 않았다.

연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이다. 아직도 내 문패가 별것게 오는 편지를 기다리던 집에서 묵었다. 좁은 마당을 넘어 골목길이 있었다. 시차를 적응하지 못해 얼핏 졸음을 참지 못할 오 후시간이었다. 아이들 뗏이 지나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당연히 한국어인데, 영어인듯 한국말인 듯 구분할 수 없었던게다. 아이들 소리가 지나가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소리만 이따금 배경음처럼 웅웅이더라. 고요함이 봄날 저녁처럼 깊어졌다. 스스로 졸음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조병화 시인의 시 몇구절이다.

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들니 마냥 고요하여라 ...  
만남과 이별이 세월이 되고  
마른 눈물이 이곳이 되면서  
지나 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하여라  
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조병화, 고요한 귀향)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토마스 울프의 작품 제목이다. 문구는 귀에 익었다. 고향 골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골목은 옛적 그 골목은 아닐 터. 더 이상 덩쿨장미는 피어나지 않는다. 장미뿌리는 담장을 훌러널 적에 이미 뽑혔으니 말이다. 그 고향에 다시 돌아 갈 수 있을까?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내 보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아이들 웃고 떠드는 소리가 이따금 들린다. 자전거를 타고, 오르내리는 소리인게다. 하지만 아이들 지나다니는 소리는 옆집에서 잔디깎는 소리에 쉽게 놀린다. 텅텅거리는 기계음이 더 크다는 말이다. 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요한 4:44)

아이에게 물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리가름이 무엇이나. 시험해 보고자 물어 본 건 아니었다. 아비나 아들이나 모두 메인스트리트가 가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다. 어느 도시건 중앙통은 있을 테니 말이다. 구글에서는 기대하지 못한 답이 나왔다. ‘세컨드 스트리트’ 가 가장 많은 이름이라 한다. 이번가二番街가 일번가一番街보다 더 많다는 거다. 이찌방이 신라면에 밀렸다.

구멍가게는 담배가게와 겹친다. 아이스크림 냉장고는 가게 입구에 있어야 옳다. 주홍색 공중전화는 나무평상과 마주한다. 두 서넛 동네 어른들 평상에 앉아 한가롭게 부채질 하고 있다. 한적하기 그지 없는 동네 구멍가게 모습이다. 집을 찾는 거라면 당연히 여기서 물어봐야 한다. 동네 어른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골목을 한참 따라 올라가다가, 녹색 대문

집이라 일러준다. 하지만 녹색 대문이 한두개라야지. 문패도 번짓수도 찾기 쉽지 않다.

어머니는 내가 머리 컷을 적에 아버지 문패 옆에 내 문패를 달았다. 녹색 철문 옆 기둥에 자개를 박은 걸로 달아 주셨던 거다. 그리고 스스로 흡족해 하셨다. 새파란 청년인 나는 결혼하기 전이고 아직도 온전한 성인이라고 말하기 뭣할 적이었다.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으니 말이다. 어머니의 계산된 행동에 선친은 말씀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셨다. 당신도 매우 대견해 하셨던 거다. 내게 오는 편지 나무랭이가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당신의 문패는 달지 않으셨다. 문패를 따라, 담장엔 선친이 심어놓아 가꾸던 덩쿨장미가 여름이면 한창 불만했다. 선친은 좁은 앞마당에 키 크지 않은 나무며 화초를 가꾸셨는데, 내 눈엔 덩쿨장미가 압권이었던 거다. 보기도 화려

# 한국 무협 사극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

<연평해전> <암살>의 뒤를 잇는 액션 대작

이병헌+전도연+김고은! 궁극의 캐스팅!  
절정의 연기력으로 그려진 강렬한 드라마!

압도적 영상미! 수려한 액션! 무협 영화의 극치!

MEMORIES OF THE SWORD

# 형제, 칼의 기억

## 8월 28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s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Tel.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WWW.MEMORIESOFTHEWORD.COM](http://WWW.MEMORIESOFTHEWORD.COM)  HITKMOVIE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5. 조상의 땅을 사수하라 (4)

오대호 지역의 Northwest Indian War (계속) 자신의 생활터전이 백인 정착민에 의하여 에워 쌓이고 있는 데에 대하여 인디언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다던 조지 워싱턴은 인디언들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Josiah Harmar와 Arthur St. Clair장군의 지휘하에 많은 병력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Blue Jacket (Shawnee족), Little Turtle(Miami족), Buckongahelas (Lenape족), 그리고 Egushawa(Ottawa족)가 이끄는 인디언 연합세력에 크게 패하였다. 특히 1791년 Arthur St. Clair장군이 지휘하던 미국군은 인디언과의 전투 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 전투에서 미국 측은 623명이 전사하고 25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군대를 따라왔던 민간인 200명도 살해당했다. 워싱턴 대통령은 세 번째로 Anthony Wayne 장군을 다시 분쟁지역으로 파견하여 진압을 시도하였다. 웨인 장군이 이끄는 미국군이 'Battle of Fallen Timbers' 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다. 전후 처리를 위하여 1795년 체결된 'Treaty of Greenville' 에 의하여 인디언들은 오늘날 오하이오 주 옛 영토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인디언이 미국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것은 2만 불어치의 담요, 생활용품 가축 등이 전부였다.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Northwest Indian War' 또는 'Little Turtle's War' 라 부른

다. 테쿰세전쟁 1768년 3월 오하이오 주 피쿠와에서 태어난 쇼니(Shawnee)족 지도자인 테쿰세(Tecumseh)는 테쿰세 전쟁과 미영 전쟁 기간 동안 광범위한 인디언 부족 연합을 이끌고 1813년 10월 5일 온타리오 테임즈 전투에서 45세로 전사할 때까지 미국에 대항하여 싸웠다. 테쿰세의 동생인 텐스콰타와(Tenskwatawa)는 인디언들에게 음주와 유럽식의 옷과 총기와 같은 백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척하고 인디언 고유의 삶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했던 종교적 지도자였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테쿰세의 연합은 더욱 성장하였다. 테쿰세는 북아메리카 토착민에게 속한 땅을 어떤 소수 부족이 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미국과 각 부족들이 맺은 모든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모든 원주민 부족들이 한데 뭉치는 일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부족 연합을 성사시키고 연맹의 지도자가 되었다. 테쿰세는 주지사였던 해리슨(William Henry Harrison)을 상대로 영토 양도조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Northwest Indian War'에서 청년 미국 장교와 젊은 인디언 전사로서 서로 만난 적이 있었다. 1810년 8월 12일 빈센트에서 테쿰

세가 미국 정부가 사기를 쳐서 그들의 사냥터를 빼앗은 것을 비난하며 주지사 해리슨에게 한 연설은 세계적 명 연설문으로 평가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의하여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 연설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쇼니족이다. 나의 선조들은 용맹스런 전사들이었다. 그들의 자손들 역시 용맹스런 전사들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다. 옛날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대륙에 백인은 없었다. 이 땅은 인디언들에게 속한 땅이다. 우리는 행복한 종족이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우리 땅을 잠식해 오는 백인들에 의해 불행해지고 말았다. 이런 악한 일을 저지해 중단시키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인디언이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땅은 처음부터 각 부족이 사용하도록 모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땅을 팔 권리가 없다. 인디언끼리도 서로 팔 권리가 없다. 이 방인에게는 더더욱 팔 수 없다. 인디언들이 처음 이 땅을 소유했고 이 땅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백인들은 인디언에게서 이 땅을 뺏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인디언들이 그 땅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근래의 거래는 옳지 않다. 그것은 백인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거래이다. 인디언들은 땅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래는 모든 사람이 관여해야 한

다. 모든 인디언은 점유되지 않은 땅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다." 테쿰세는 남부지역까지 연합의 확장을 시도했다. 비록 남부 인디언 모두를 동맹에 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크리크족 중 Red Stick 지파는 연합군으로 확실하게 편입시켰다. 하지만 그가 남부로 떠난 사이에 1811년 텐스콰타와가 '티피카누 전투' 에서 패하였다. 테쿰세는 돌아와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1812년에 캐나다에 있던 영국군과 동맹하였다. 이로써 테쿰세전쟁으로 시작된 영토 회복 전쟁은 영미전쟁으로 확대되고 남부지역에서는 뒤에 크리크전쟁으로 연장되어 나갔다. 영미전쟁에서 테쿰세는 디트로이트 요새의 포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요새의 함락에 크게 기여했다. 1813년 미국인들은 해리슨 주지사의 지휘하에서 캐나다 테임즈(Thames)를 침공하였으며, 테임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테쿰세는 전사하였다. 원한에 죽어간 테쿰세는 테쿰세의 저주라는 유명한 전설을 남겼다. 이 저주는 테쿰세의 죽음 후 20의 배수 해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암살되거나 병사한다는 내용인데, 과거를 돌아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헨리 해리슨(테쿰세를 죽인 장본인)은 1841년에 폐렴으로 죽었다. 1860년에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5년에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5 태권도와 김운용(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임기4년)으로 선출되었는데 위원이 된지 2년 만에 집행위원이 된 최초의 위원이자.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체육회 회장(KSC, 1993년)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KOC, 1993년)에 선출되었으며, 1996년에는 대통령특사 그리고 2000년에는 전국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 특히 그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에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지만 허사였다.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 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에서 두 번이나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식종목이 아니면 완전히 퇴출되는 관계로 태권도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무산되었다. 전화위복, 김운용을 정점으로 모든 태권도인들이 혼신을 다했어도 아틀란타 올림픽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그간의 노력은 결코 허사가 아니었다. 1994년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올림픽인 2000년의 '시드니올림픽' 과 2004년의 '아테네올림픽' 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역사적인 남북한 선수들의 동시입장도 있었다. 이 모두 김운용의 역할이 컸다. 그의 신념과 의지로 그간 다져온 IOC내의 인맥을 통한 정식종목의 채택은 그만의 쾌거가 아니라 모든 태권도인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 태권도는 2004년의 '아테네올림픽', 2008년의 '북경올림픽', 2012년의 '런던올림픽' 에서 우리나라를 세계10위권의 스포츠강국(하계올림픽 메달집계 면에서...)으로 위용을 떨치는데 한 몫을 당당히 하였다. 2016년의 리우데 자네이루(브라질) 올림픽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의 도쿄올림픽에도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핵심종목 25경기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가라테를 비롯한 기타 국제무술연맹의 협공이 있겠지만 그간 쌓아온 태권도의 스포츠적 가치와 '내공'을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태권도는 영원히 올림픽 성화와 함께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리라 본다. 이렇게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단시일 내에 무도계를 천하통일하고 올림픽에 입성한데는 김운용에 의해 1978년 우리나라의 태권도의 9개 대분과와 30여개가 넘었던 지파들을 대통합했기에 가능했다. 그후 국내외의 모든 태권도인들이 우리의 국기國技를 전세계에 전파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단합한 마음과 단결된 모습은 국제무대에서 먼저 얼굴을 내밀고 더 많은 수련인구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의 가라테를 이길 수 있었다. 일본의 가라테는 현재도 60여개의 유파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 누가 한국인은 단결심이 부족하다고 자설自說하라!? 138) GAISF, 전 세계 104개에 이르는 올림픽과 비올림픽 스포츠의 국제연맹을 회원단체로 하고 있는 GAISF는 IOC와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205개 국가 올림픽 총연합회)와 함께 세계 스포츠계를 주도했던 기구였다. 1964년 4월21~23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결성되었다. 45년간 존속했던 GAISF(본부: 모나코, 몬테카를로)가 2009년 총회에서 'SportsAccord' 로 개칭하고 본부를 스위스 로잔으로 옮겼다. 김운용이 1986년에서 2005년까지 이 기구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139) 역대 우리나라 IOC위원: 이기봉, 이상백, 장기영, 김택수, 박종규, 김운용, 이근희, 박용성, 문대성(선수위원) 등이다. 김운용은 자신의 저서 '세계를 향한 도전' (2002) 에서 "2001년 현재 IOC회원국은 199개국이며, 이들을 대표하는 IOC위원은 124명 뿐이다. 즉 회원국 중에는 위원을 내지 못한 국가가 더 많다. 그러므로 IOC위원은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지위 중에서도 그 수가 적은 일종의 명예로운 지위" 라며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20th Mnet

# SHOW ME THE MONEY 4



# CONCERT

| TABLO | PALOALTO | SAN E | VERBAL JINT |  
| JAY PARK | LOCO | AND MORE! |

NY | SATURDAY, SEPTEMBER 12 | 7:30PM @ BEST BUY THEATER

티켓 구입 및 문의: 718-460-011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유(遺)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 마태복음 10:39

자기 뜻이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해서일까? 사람들의 주장과 속셈이 사람마다 같지 않다.

북한군이 보여준 북한지도자들의 속셈을 한, 미 양국이 어느 정도 파악했을까? 미국 CNN방송은 25일 이번 북한군이 보여준 동향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시 작전계획을 전면 다시 짜기로 했단다. 한미 연합군이 제일 걱정하는 대목은 한반도의 동, 서해에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에 해당하는 50척이 모두 한미 감시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점이다.

이중 일부는 지난 25일 남북 합의 후, 원위 치료 회항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당수는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북한은 지난 5월 신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 을 볼 속에서 발사 실험하는 등 잠수함을 통한 기습 능력을 확장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다.

특수부대 요원들을 대거 침투시키는 수단으로 잠수함이 이용 될 수 있어서 북이 예고 없이 대거 잠수함을 작전에 투입할 경우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북한은 또 후방에 머물던 특수부대원들을 전방으로 대폭 이동시켰고 서해에 공기부양정 20척을 전진배치 시켰다. 이와 함께 준전시 상태 돌입 직후 방공(防空) 레이더를 가동하고 비무장지대에 포대를 추가 배치 했다.

전면전의 핵심전력인 기계화 부대나 공군력을 동원하는 징후는 찾지 못했다.

들어난 북한군의 실전준비 태세는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를 겨냥한 포사격에 이어 특수부대원 침투, 잠수함을 이용한 기습상륙 등으로 압축된다.

북한의 대남군사작전의 전모(全貌)가 들어

났다가엔 미흡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남한(南韓)의 대북전략 허점이 노출 된 셈이다. 북한의 어떤 기습 발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급하다.

기존 “한민 공동 국지도발 작전계획” 을 보강하고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를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 “북측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북한을 주어로 해 사과 표명, 유감(遺憾) 표명을 확실하게 한 첫 번째 사례” 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측의 유감표명” 을 강조했다. 직접 북측대표와 협상한 우리측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했던 홍용표 장관은 “과거 북한이 사과했을 때 물론 공식용어로 ‘유감’ 이라 돼있는데, 주어(主語)였다” 며 ‘한’ 차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측이 주어로 된 사과 성명이 있었는데 당시엔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을 향한 사과였다” 고 해서 “이번 북한의 ‘유감 표명 문항’ 은 정말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이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합의” 라고 강조했다.

만약에 이번 협상에서 “유감” 이라는 두 글자 표현이 없었더라면 남북이 “합의” 는 커녕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화제(話題)는 북한의 지뢰도발에 “북한이 설치한 지뢰 아닐 수 있다” 고 가르친 경기도 이전의 한 중학교 Y 교사.

이 교사가 조선일보와의 단독 통화에서 “

북한 지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으니 우리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얘기한 적은 있다” 면서 “정부의 두루뭉실함을 비판했 뿐 ‘북한 지뢰가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 고 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라면서 요즘 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정부 때문이라고 Y선생은 자신의 수업시간을 할애해 현대차 노조철도 노조 등 파업을 옹호하고 정부비난 발언도 자주 했었다는 것.

국회는 최근 교육현장에서의 이런일에 대해 북한 옹호발언을 포함한 선동, 편향 수업 사례를 모아 국정감사때 따지겠다.

遺유: 실야 矢也 - 잃어버린 유.

섭탈할 감(減)자와 합성해서 ‘유감’ 으로 많이 쓰이는 글자.

그런데 ‘유감(遺憾)’ 은 뜯어보면 뜻이 깊다. 減: 動 也 동야 = 감동할 감자의 에너지(동력)가 1)하나님 뜻 이 포함됐고 능력 즉 천부(天父)와 천자(天子)의 은혜와 감동이(靈)적으로 작동하는 글자인데 부정적인遺가 함께하면 “Thank You(감사) 가 지심(旨心) ‘Sorry(미안) 로 후퇴한다.

정확한 표현은 ‘유감’ 은 ‘하늘이 주신 은혜와 감사’ 잊었다, 또는 잃었다’ 는 표현이 된다.

성경적으로 “에덴동산의 각종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善惡)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라 하시니라 :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창세기 2: 16-17.

바로 이 “선악과의 사실” 이 유감을 설명하는 훈시(訓示)로 “알면서도 나쁜짓을 하고 나쁜 것을 저지르고도 거짓으로 덮어 불러는 인생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명숙씨는 국무총리를 지내고서도 형무소를 가는가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법정구속’ 을 겁을 내서 “자살했다” 는 설이 심심치 않게 신문지면을 누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 고 환영했으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합의 결과에 대한 왜곡(歪曲)일 수 있다” 고

문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남북당국이 고위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조성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합의에도 달한 것을 높이 평가 한다” 고. 이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목함지뢰로 가해진 우리 병사들의 부상에 대해서 유감(遺憾)을 표명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이라 했다.

이 遺憾을 말로서만이 아니고 생활과 감사로 표현 사람은 바울(Paul)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갈라디아서 2:20

김일성이 이 구절을 알고 믿었으면 한반도는 하나였을텐데……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교재가 확실하다!
- 교사진이 확실하다!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아눔이(Anup)**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력 3년 이상의 **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발음, 부채춤, K-POP, 권총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6 Saturdays)

Regular Classes:

- \$300 (one child)
- \$560 (two children)
- \$75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80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12 2015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문방, 스낵

**27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5-2016 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7)

# 신용의 의무(Fiduciary)가 있어야 하는 이유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은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와 땀” 인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자니 물가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매년 적어집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도나도 재정설계사라고 말하며 투자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진실로 투자자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일하는지가 자못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Insurance Agent),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사람(Stock Broker), 시중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등 모두를 본인들이 재정설계사(Financial Planner) 혹은 투자상담가(Investment Adviser)라고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이익보다는 몸담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본인 수입을

위해서 고객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법률상 의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의 의무 (fiduciary duty)” 라고 말하며 투자 결정할 때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에게는 ‘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브로커나 보험 인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당한 투자(suitability)” 라는 규칙만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재정상담가가 수수료(commission)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이러한 금융상품이 진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판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수입을 위해서 판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 판매는 ‘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하는 재정상담가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한 의무’ 만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재정상담가가 고객 자산 \$100만 불을 수수료 7% 받을 수 있는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고객의 돈 \$70,000이 재정상담가 수입입니다. 수수료와 같은 숨어있는 경비는 일반적으로 재정문서에 나오지 않기에 일반 투자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자못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금융업계의 실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기관(SEC),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은퇴자 모임(AARP), 등에서 투자를 도와주는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초 ‘신용의 의무’ 법안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령으로 정해지

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금융회사가 투자자한테 부과하는 단 1%는 무려 170억 달러(\$17 billion)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또 조심해야 하는 재정설계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재정설계사는 ‘신용의 의무’ 와 ‘적당한 의무’ 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필요에 따라서 의무를 편한 대로 적용합니다. 금융감독기관인 핀라(FINRA) 발표에 의하면 ‘신용의 의무’ 와 함께 주식 브로커로 등록된 사람이 88%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어뉴어티(annuity)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에도 높은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팔게 되면 이것이 고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신용의 의무’ 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리스팅을 잘 표현하는 방법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해서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말을 잘못해서 또는 어리석게 표현을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에도 많이 쓰인다. 성경에도 ‘입술의 열매’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 지를 가르치고 있다.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집 주인뿐 아니라 리스iting 에이전트도 주택을 잘 팔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택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을 까를 항상 고민을 한다. 주택의 특징을 바이어에게 호소력 있게 잘 표현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림은 물론이다. 2000년대 초 그라나잇 카운터 탑업그레이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당시 주택 특성을 표현할 때 비슷한 형태의 주택에서 ‘그라나잇’ 이란 표현을 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판매가 차이가 약 1.1% 정도 차이가 났다는 통계가 있다. 그럼 주택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까?

주택의 장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이다. 그러므로 집 주인은 리스iting 에이전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택의 특징을 알려주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집을 표현하도록 주문을 한다. 이때 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 즉 제목을 뽑아내야 한다. 바이어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제목을 내어내야 그 다음 이어지는 주택의 특징을 바이어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Spacious, Charming, Beautiful, Quaint, Sweet등과 같은 표현은 밋밋하다. 오히려 Sensational, Gorgeous, Stunning, Phenomenal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헤드라인이 더 호소력이 있고 바이어를 끌어 들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야 할 표현들도 많이 있다. 주택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여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가령 2000sf이 넘는 상당히 큰 주택을 Cut, Coz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Totally Remodeled, Fully Renovated, Completely upgraded와 같이 완벽하다는 표현은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어떤 집도 100%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사용하면 제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택의 특징을 표현하는 문구로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주방기구나 업그레이드된 설비의 상품명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가령 Pergo wood, Jacuzzi, Sub-zero, Viking 등은 상품 종류가 아닌 고급 브랜드 이름 즉 상품명이다. 만약 욕조가 자쿠지 상표가 아닌데 자쿠지라고 표현을 해서 나중에 욕조를

자쿠지 상표로 바꾸어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별을 내포하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가령 Perfect for young couple, Good neighborhood for kids or families, 또는 Walking distance to schools 등과 같은 표현은 삼가야 한다. 즉 젊은 커플을 위한 곳이란 표현은 나이트 부부나 싱글에게는 차별을 하는 것이다. 또 학교가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걸어서 갈 수 있다는 표현은 걸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차별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close to school 또는 convenient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호한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주택에 특징이 많다면 표현하는 문장이 길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장황하고 길게 표현을 한다면 바이어들은 읽다가 싫증을 내서 그 집을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집을 꼭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되도록 부정적인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고칠 것이 많다고 해서 fixer, perfect for investment라는 표현을 쓰면 리스iting 가격보다 한

참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통계가 있다. 오히려 고칠 것이 있다면 TLC(tender loving care)라는 표현으로 그 정도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좋다. 그 집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장점을 잘 부각시키고 정확히 묘사를 해서 표현을 한다면 요즘처럼 경쟁이 많은 리스iting 중에서 좋은 가격으로 빨리 팔릴 것이다.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 패트리어츠 프리시즌 3주차 로스터 상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5 NFL 정규시즌 개막일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은 시즌이 개막할 때 로스터에 남아 있기 위해 훈련 막바지에 임하고 있다.

프리시즌 3주차 경기가 끝나면 로스터는 75명으로 제한되고, 4주차 경기가 끝나면 최종 53인 로스터가 완성된다. 현재 패트리어츠 로스터에 남아 있는 선수 중 최종 로스터 선발과 관련하여 눈여겨 봐야 할 선수들을 살펴보자.

### Aaron Dobson

세 번째 NFL 시즌을 앞두고 있는 애런 답슨에게 올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2013년 드래프트에서 패트리어츠는 2라운드에 답슨을 지명했다. 답슨은 훌륭한 와이드 리시버로 성장할 수 있는 재목으로 여겨졌지만, 지난 2시즌 동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프로 선수로서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답슨은 최근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답슨은 언제든지 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만, 패트리어츠는 답슨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쉬게 하고 있다.

답슨 뿐만 아니라 패트리어츠의 주전급 와이드 리시버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다. 브랜든 라펠, 줄리안 에들먼, 브라이언 팀스, 브랜든 김슨 등의 선수들이 모두 부상자 명단에 올라 연습을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팀스와 김슨의 부상으로 인해 답슨이 주전 와이드 리시버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와이드 리시버들이 잇달아 부상을 당하자 패트리어츠는 최근 베테랑 리시버 레지 웨인과 계약을 맺었다. 답슨이 패트리어츠에 남아 있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 Brian Tyms

브라이언 팀스는 사실상 올해 시즌을 마감했다.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팀스가 올해 시즌 중에 경기장에 돌아오는 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어츠에는 여러 선수들이 주전 리시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팀스는 트레이닝 캠프 기간 중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주전이 될 가능성을 높였으나 결국 올해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팀스는 8월에 어깨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되어 연습에 복귀하자마자 세인트와의 합동 훈련 중



패트리어츠의 백업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가 시즌 초반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발을 크게 다쳤다. 팀스의 부상을 확인한 후 패트리어츠는 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팀스의 자리를 메꿀 선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 Jimmy Garoppolo

패트리어츠의 백업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는 올해 프리시즌에서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일 것이다. 지난 시즌 제대로 된 출

전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거라폴로지만, 올해는 주전 쿼터백인 탐 브래디가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적어도 시즌 첫 4경기에는 선발 출전을 해야 한다.

비록 프리시즌 2경기지만 거라폴로는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커스와의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7번이나 색을 당하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인트와의 경기

에서는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거라폴로 스스로도 패트리어츠의 공격 전술에 적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시즌에서 2진급 수비 선수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거라폴로가 정규시즌에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남은 2번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거라폴로는 더욱 성장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 [MLB] 선발제외 강정호, 대타로 안타...타율 0.290

피츠버그, 마이애미에 2-5로 져 4연승 실패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배진남 기자 =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쳤다.

강정호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미국프로야구 방문경기 선발 출전선수 명단에서 빠진 채 팀이 1-5로 끌려가던 8회초 선두타자인 투수 자레드 휴즈 타석에서 대타로 들어섰다.

마이애미의 좌완 선발 브래드 핸드와 대결한 강정호는 1볼-0스트라이크에서 2구째 시속 89마일(약 143km)의 바깥쪽 직구를 밀어쳐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전날 불넷으로만 두 차례 출루하고 3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이날은 한 번의 기회에서 안타를 쳐

냈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강정호는 더는 진루하지 못했다. 강정호는 8회말 수비에서 투수 안토니오 바스타도와 교체됐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88에서 0.290으로 올랐다.

강정호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17일 뉴욕 메츠와 원정경기 결장 이후 9경기 만이다.

강정호가 뛰던 유격수 자리에는 부상에서 회복한 조디 머서가 선발 출전했고, 3루수는 아라미스 라미레스가 맡았다.

2루수에도 주전 닐 위커가 빠지고 역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가 돌아온 조시 해리슨이 나섰다.

클리프 허들 피츠버그 감독은 해리슨과 머서가 팀에 복귀해 내야 운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강정호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피츠버그는 그레고리 폴랑코(

우익수)-스탈링 마르테(좌익수)-앤드루 매커천(중견수)-아라미스 라미레스(3루수)-프란시스코 세르벨리(포수)-마이크 모스(1루수)-해리슨(2루수)-머서(유격수)-찰리 모튼(투수) 순으로 선발 타순을 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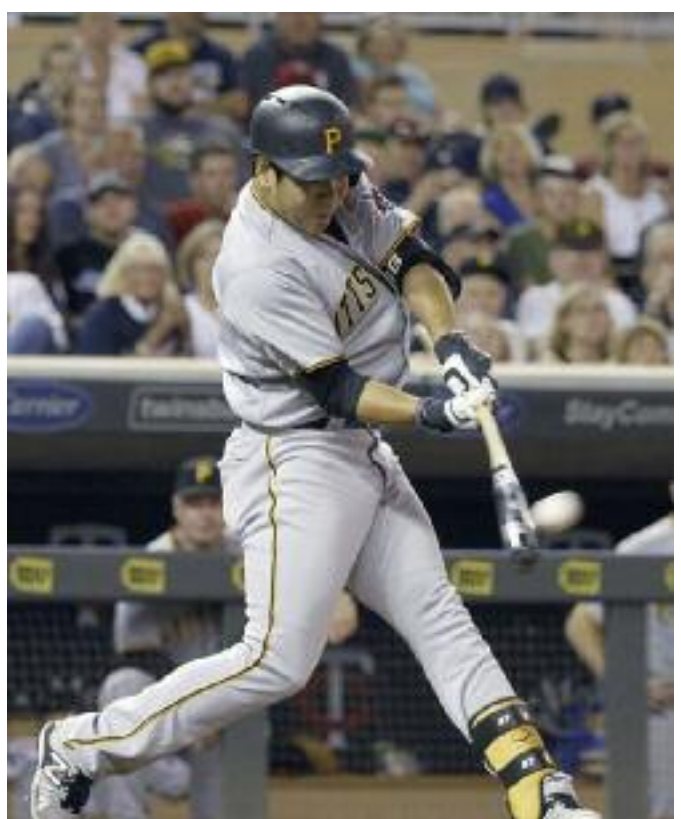
피츠버그는 마이애미에 2-5로 져 4연승에 실패했다.

마이애미 핸드는 8이닝 2실점 호투로 시즌 4승(3패)째를 챙기고 팀의 4연패도 끊었다.

피츠버그는 1회초 2사 후 매커천의 2루타에 이은 라미레스의 우중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하지만 4회 2사 3루에서 저스틴 보어의 2루타로 동점을 허용했다. 5회에는 무사 1루에서 J.T. 리얼무토의 중전안타 때 중견수 매커천이 공을 빠트리는 바람에 1루 주자가 홈을 밟아 1-2로 역전당했다.

피츠버그 선발 모튼은 6회에 마틴 프라도, 보어의 연속 2루타로 두 점을 더 빼앗기고 강판당했다.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이어 등판한 자레드 휴즈도 크리스티안 엘리치에게 2루타를 얻

어맞아 너 점 차로 벌어졌다. hosu1@yna.co.kr

#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급매매, 네슈아 뉴햄프셔,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2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 ~ 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